

# 朝鮮 後期 華嚴七處九會圖와 蓮華藏世界圖의 圖像 研究

이 용 윤\*

- I. 머리말
- II. 화엄법회와 노사나불
- III. 송광사·선암사·쌍계사 화엄칠처구회도
- IV. 통도사 화엄칠처구회도
- V. 화엄의 연화장세계도
- VI. 맺음말

## I. 머리말

조선 후기 불교계는 禪을 중심으로 教와 念佛을 함께 하는 수행방식이 보편화되었다. 승려들은 전문 교육기관인 講院에서 沙彌科·四集科·四教科·大教科를 이수하면서 선과 교와 염불에 관한 경전들을 습득하였다. 이 시기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華嚴經』을 중심으로 한 교학의 발흥이다.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전국 강원에서 대교과의 교과목인 『화엄경』 강의가 성행하였고, 때때로 천여 명의 대중이 운집한 대규모 화엄법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또한 『화엄경』의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暮雲震言(1622-1703)의 『華嚴七處九會品目之圖』, 雪

\* 직지성보박물관 학예연구원

坡尙彦(1707-1791)의 『華嚴清涼疏隱科』, 默庵最訥(1722-1795)의 『華嚴科目』이나, 경전의 잘못된 구절을 바로 잡고 새로이 註釋을 더한 蓮潭有一(1720-1799)의 『華嚴玄談私記』와 仁嶽義沾(1746-1796)의 『華嚴私記』 등 여러 권의 화엄 관련 서적이 저술될 정도로 화엄사상이 무르익던 시기였다. 이러한 불교계의 움직임의 하나로 복잡하고 난해한 『화엄경』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쉽고 명료하게 보여주는 '華嚴七處九會圖'<sup>1</sup>와 '蓮華藏世界圖'<sup>2</sup>가 제작되었다.

조선 후기에 조성된 화엄칠처구회도와 연화장세계도는 『화엄경』 역본 중 實叉難陀가 번역한 『80화엄경』에 의거한다. 『화엄경』은 설법장소와 설법 횟수로 구분하거나 품수에 따라 세분되는데, 『80화엄경』은 칠처구회에 39품으로 구성된다. 화엄칠처구회도는 일곱 장소에서 아홉 번 설법이 행해지는 칠처구회를 하나의 화면에 그린 불화이고, 연화장세계도는 39품 중 「華藏世界品」에서 서술하는 비로자나불 정도를 그린 것이다. 화엄칠처구회도는 송광사, 선암사, 쌍계사, 통도사 등에 전하며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까지 제작되었다. 연화장세계도는 서울역사박물관, 용문사, 통도사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19세기 후반에 그려졌다.

지금까지 『80화엄경』을 도해한 불화에 대한 연구로는 학계에 일찍 소개된 송광사·선암사·쌍계사의 〈화엄칠처구회도〉에 관한 몇 편의 글이 있을 뿐, 이 세 점의 화엄칠처구회도나 근래에 새로이 공개된 〈통도사 화엄칠처구회도〉, 그리고 세 점의 연화장세계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sup>3</sup> 본 글에서는 조선 후기 화엄칠처구회도와 연화장세계도의 도상적 연원을 살펴보고, 『80화엄경』에 의거해 화엄칠처구회도와 연화장세계도의 구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 1 『80화엄경』의 七處九會를 그린 불화에 대한 명칭은 講記마다 大華嚴會, 華嚴幀, 華嚴七處九會 등으로 기록하였고, 학자들은 華嚴經變相圖, 華嚴幀畫, 華嚴經變相圖幀畫, 華嚴變相圖華嚴幀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화엄경』의 책머리에 삽도형식으로 들어가는 변상도와 구별하고, 화면구성이 칠처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근거하여 華嚴七處九會圖로 서술하겠다.
- 2 「화장세계품」을 도해한 불화의 명칭은 통도사의 경우 華藏刹海圖로 적혀 있고, 서울역사박물관 소장본에는 상단에 「毘盧華藏之圖」라고 밝히고 있다. 용문사 소장본은 화기 앞부분이 지워져 정확한 명칭을 알 수 없다. 이 글에서는 「화장세계품」에 언급된 「蓮華藏世界」란 명칭에 따라 蓮華藏世界圖로 서술하겠다.
- 3 송광사·선암사·쌍계사의 〈화엄칠처구회도〉의 구성을 언급한 글로는 文明大, 『韓國의 佛畫』(열화당, 1977), pp. 58-62; 金玲珠, 『朝鮮時代佛畫研究』(지식산업사, 1986), pp. 21-35; Sorensen, Henrik H., "The Hwaom Kyong Pyonsang To: A Yi Dynasty Buddhist Painting of The Dharma Realm," *Oriental Art* (1984), pp. 91-105; 姜友邦, 「韓國의 華嚴美術論」, 『伽山學報』 4집(1994), pp. 98-102 등이 있다. 이 세 점의 화엄칠처구회도의 조성배경에 대한 글로는 이영숙, 「18세기의 華嚴經變相幀畫」, 『全南文化財』 7집(1994), pp. 221-240이 있다. 송광사 〈화엄칠처구회도〉의 구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본 글로는 이용윤, 「朝鮮 後期 華嚴幀畫의 構成과 象徵: 松廣寺 華嚴幀畫를 中心으로」, 『韓國의 佛畫』 20(성보문화재연구원, 2000), pp. 193-224이 있다. 연화장세계도에 관한 글로는 姜友邦, 위의 글, pp. 143-146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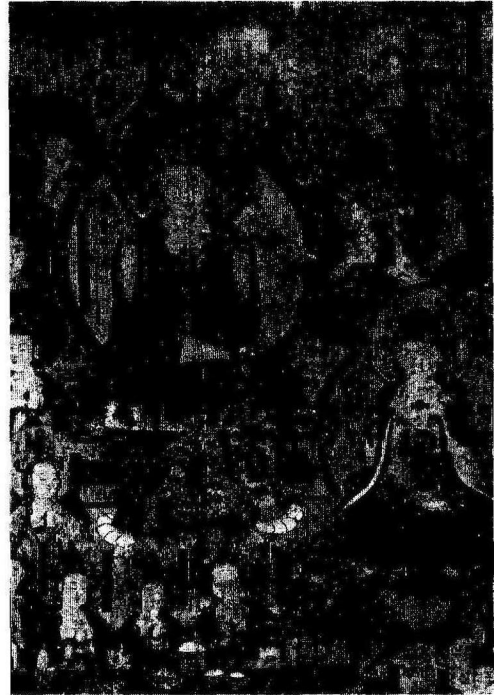
## II. 화엄법회와 노사나불

### 1. 『화엄경』과 중국의 노사나불 설법회

화엄칠처구회도에서 설법회는 주존인 盧舍那佛을 중심으로 說主菩薩과 법회에 참여한 諸菩薩, 華嚴聖衆 등으로 구성된다<sup>도1</sup>. 설법회에서 가장 주목되는 도상은 노사나불이다. 고려시대의 화엄경변상도에서 주존은 지권인을 한 여래형 毘盧遮那佛이지만, 조선 후기 화엄칠처구회도에서는 양 손을 어깨 위로 올려 설법인을 하고 있는 보살형 노사나불이 주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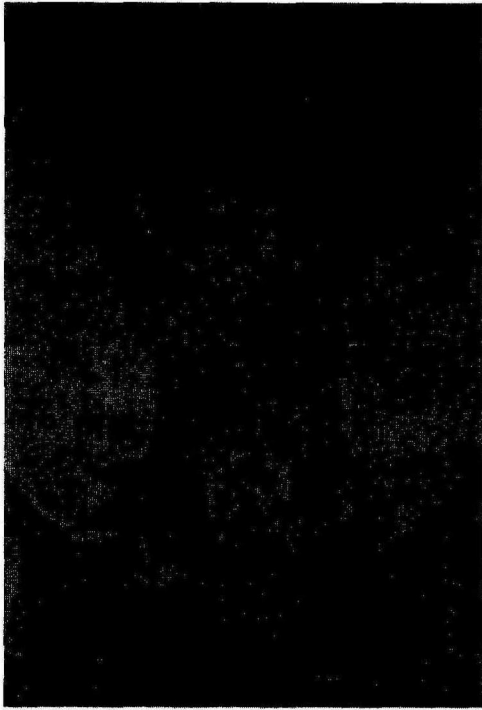
노사나불과 비로자나불은 석가모니불이 깨달음을 성취한 순간 『60화엄경』에서는 노사나불과, 『80화엄경』에서는 비로자나불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서술하였다. 화엄사상에서 노사나불과 비로자나불은 融三世間十身具足の 法身佛이란 같은 불신으로 설명된다.<sup>4</sup> 노사나불은 Vairocana의 음寫로 遍照, 毘盧遮那, 舍那로 불리며 원래는 태양을 뜻하고, 佛智의 廣大無邊을 상징하며 無量劫海의 공덕을 닦아 정각을 이룬 연화장세계의 교주인 것이다.

노사나불 도상으로는 남북조시대에 조성된 法界人中像이 있다. 법계인중상은 신체나 법의에 아귀, 축생, 인간, 아수라, 천계 등의 六道를 표현하고 있다. 노사나불의 도상



도1 송광사 <화엄칠처구회도>의 일부

<sup>4</sup> 融三世間이란 衆生世間, 器世間, 智正覺世間 등 3개의 세간이 融通總攝된 것으로 응삼세간 그대로가 바로 불타로서, 融攝된 전 우주를 불타여래로 大觀한 것이다. 이를 十身具足の 法身佛이라 하고 法界身雲이라고도 한다. 金苒石, 『華嚴學概論』(法輪社, 1960), pp. 106-107.



도2 <칠처구회도>의 제3회 도솔천궁회,  
宋 1096년, 중국 산서성 개화사 대웅보전

변화에 있어 주목되는 자료로 開化寺의 송대 벽화와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의 遼代(907-1124)에 조성된 노사나불상이 있다.

中國 山西省 高平市 開化寺 大雄寶殿에는 紹聖 3년(1096)에 그려진 <칠처구회도>가 남아 있다. 이 중 東壁에는 제3회 도리천궁회와 제7회 보광명전회, 제8회 보광명전회가 그려져 있다. 제7·8회 보광명전회에서 주존은 선정인을 한 석가여래이지만 제3회 도솔천궁회의 주존은 두 손을 어깨로 올리고 양쪽으로 벌려 설법인을 하고 있는 여래형 노사나불이다도2. 노사나불의 법의에는 법계인중상처럼 법계를 상징하는 인물, 가옥, 도리천궁, 연화 등 갖가지 형상이 가득하다. 그리고 연화대좌의 연잎마다 둥근 대원에 작은 원이 둘러싼 모양이 그려져 있다.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 소장의 요대 <노사나불상>은 여래형이며, 수인은 비록 파손되었지만 어깨 위로 올려 양 옆으로 벌려진 손의 형태로 보아 설법인으로 추정된다도3. 이 불상에도 법의에 지옥, 사바세계, 열반, 도리천궁 등 법계의 형상을 묘사하였다. 요대 <노사나불상>도 개화사의 노사나불과 마찬가지로 연화대좌의 연잎마다 삼존상과 보리수가 있다. 대좌에 있는 圓이나 佛은 『梵網經』의 「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에서 서술한 蓮花臺藏世界海를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개화사의 노사나불과 요대 <노사나불상>은 법의에는 법계를 상징하는 도상이 표현되었고 수인은 양 손을 어깨 위까지 올린 설법인을 하고 있다. 이는 남북조시대에 조성되었던 법계인중상이 점차 변형되어 송대에는 법계 도상이 사라지고 설법인을 한 노사나불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사나불이 등장하는 가장 이른 예는 중국 항주 비래봉의 <盧舍那佛會圖>(1022)이다.5 노사나불회도는 노사나불을 중심으로 사자좌 위에 앉은 문수보살과 코끼리좌에 앉은 보현보살이 좌우에 협시하고, 뒤로 4명의 보살과 사천왕이 자리하며 상단에는 2명이 비천이 있



도 4 <노사나불회도>, 宋 1022년, 중국 항주 비래봉

도 3 <노사나불상>, 遼.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 소장

다도 4. 노사나불은 머리에 보관을 쓴 보살형이며 수인은 설법인을 하고 몸과 법의에는 법계 도상이 사라졌다. <노사나불회도>는 보살형 노사나불의 가장 이른 형식이자, 우리나라에 고려 후반부터 유행하였던 노사나불 설법회와 가장 유사한 형식을 하고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

## 2. 노사나불 설법회의 한국 유입과 전개

우리나라에서 노사나불이 설법장면에 주존으로 등장한 시기는 14세기 중엽이다. 노사나불 설법회는 『大方廣佛華嚴經疏』(이하 화엄경소로 약칭),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梵

<sup>5</sup> <노사나불회도>의 명문은 다음과 같다. “弟子胡承德伏爲四恩三有命石工鑄盧舍那佛會一十七身所其來往觀瞻同生浮土時大宋乾興□□四月日記.” 비래봉 노사나불에 관한 연구자료로는 石田尚豊, 『飛來峰の華嚴佛會像-新毘盧遮那佛の原流』, 『Museum』 194(1967), pp. 2-18; 崔聖銀, 『唐末五代 佛教彫刻의 傾向』, 『美術史學』 6(1992), pp. 172-174; 鄭恩雨, 『杭州 飛來峰의 佛教彫刻』, 『미술사연구』 8(1994), pp. 202-203 등이 있다.

網菩薩戒經』 등 화엄사상과 관련이 있는 경전 변상도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중 화엄칠처구회도와 관련되어 가장 주목되는 변상도는 화엄경소변상도이다. 『대방광불화엄경소』는 唐의 澄觀(738-839)이 저술한 『80화엄경』 해석서로 宋代에 淨源(1011-1088)이 다시 주해를 달아 120권으로 편찬한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선종 4년(1087)에 義天(1055-1101)이 송에서 경판을 새로 판각하여 들여왔다. 유입 당시 경판에는 변상도가 없었으나 공민왕 21년(1372)에 와서 영통사에서 옛 모본(古範)을 따라 변상도를 제작하였다고 한다.<sup>6</sup>

영통사 <화엄경소변상도>는 조선 후기 화엄칠처구회도 설법장면의 始原형식이다. 변상도의 설법장면에는 노사나불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으로 많은 존상들이 자리한다<sup>5</sup>. 노사나불의 양 옆에는 사자를 탄 文殊菩薩과 코끼리를 탄 普賢菩薩, 두 명의 제자와 천왕이 있고 노사나불 앞에는 4명의 보살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 이 4명의 보살들은 『화엄경』에 등장하는 모든 보살을 대표한다는 의미로 諸大菩薩로 통칭하고 있다. 보살 주변으로 阿修羅, 主海神, 主大神, 鳩槃荼, 衆天子, 衆夜叉, 主晝神, 大金剛, 夜叉王, 主稼神, 大梵天王, 廣果天子, 緊那羅王, 主水神, 主河神, 主方神, 迦樓那, 大龍王, 摩候羅, 主夜神, 主林神, 主藥神, 主風身, 陀羅天王, 乾達婆, 主山神 등 제1회 보리도량회에 참석한 39화엄성중 가운데 26명의 성중이 모여 있다.

조선시대에 와서도 『화엄경소』는 명종 11년(1556)에 歸眞寺, 인조 12년(1635)에 松廣寺, 숙종 12년(1686)에 靈覺寺에서 판각되었다. 현재 송광사의 화엄경소 경판만이 유일하게 전하며, 변상도의 체제는 노사나불을 중심으로 한 설법회이다<sup>6</sup>. 노사나불 양 옆으로 사자좌에 앉은 문수보살과 코끼리좌에 앉은 보현보살이 있고, 노사나불 뒤로 迦葉, 迦旃延, 須菩提, 富樓那, 阿那律과 阿難, 大目建蓮, 憂婆離, 舍利佛, 羅喉羅 등 10대 제자가 자리한다. 노사나불 앞에는 「如來現相品」에 등장하는 勝音菩薩이 앉아 있다. 문수보살 밑에는 惠燈菩薩, 華焰惠菩薩, 法界慧菩薩, 威德惠菩薩, 精進力菩薩이 자리하고, 보현보살 아래로는 師子慧菩

6 영통사 <화엄경소변상도>의 연기 내용은 다음과 같다. “刻注華嚴經都變相緣起 華嚴海會稱周法界依正主伴重重無盡珠網鏡燈未足爲喻可以凡心凡筆形容者哉然凡夫識昧非相無以生信由是古今寫佛經者皆畫變相冠於蓋爲令物生信因此而入道也其益豈小乎此注經板乃大覺國師求法入宋泛海賣來也所恨但無此變相等且依古範募工彫板留于五冠山靈通寺印施無窮者 洪武五年壬子九月日 / 中正大夫親御軍大護軍兼內府令 李美沖 正順大夫判典儀寺事 朴成亮 忠勤佐命功臣大匡判內侍府使 金師幸.” 연기에서 밝혔듯이 이 변상도는 古範에 의거해 판을 새긴 것이다. 영통사 <화엄경소변상도>와 같은 형식의 변상도로 시기가 앞서는 예로는 공민왕 6년(1357)에 그린 호림미술관 소장인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變相圖>가 있다. 이외에도 14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보스톤 박물관 소장인 <원각경변상도>와 호암미술관 소장인 <범망보살계경변상도>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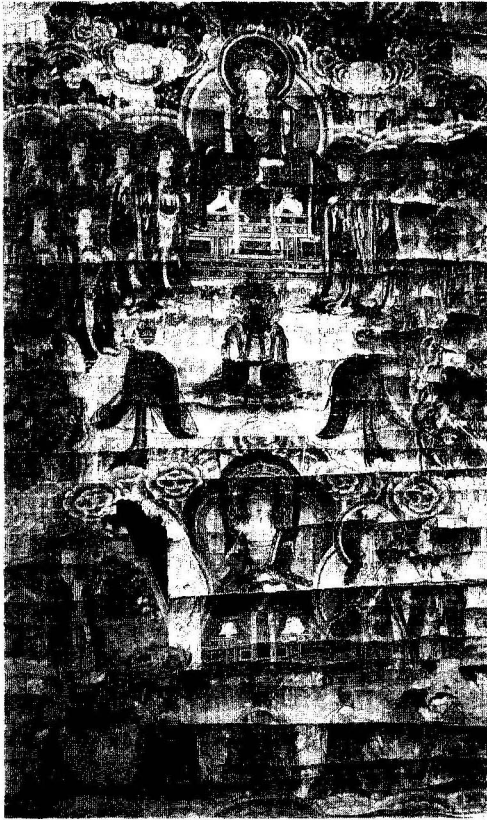
도 5 영통사 <화엄경소변상도>, 고려 1372년, 목판본, 31.8×52.7cm, 이경희 소장



도 6 송광사 <화엄경소변상도>, 조선 1635년, 목판본

薩, 法喜慧菩薩, 法海慧菩薩, 普焰光菩薩, 蓮華光菩薩이 모여 있다. 이들은 승음보살과 함께 「여래현상품」에 나오는 보살들이다. 「여래현상품」에 등장하는 보살들 사이로 제9회 서다림회의 「입법계품」에 등장하는 善財童子가 자리한다. 이 보살들 옆으로 「世主妙嚴品」에 등장하는 보살과 華嚴聖衆이 모여 있다. 오른쪽에는 帝釋天王, 大梵天王, 俗界諸天衆, 日光天子, 月光天子, 夜摩天王, 兜率天王, 化樂天王, 他化天王, 三十天王, 三界諸天王, 廣普天王, 徧淨天王, 廣果天王, 大自在天 등 화엄성중과 사천왕 중 東方天王과 南方天王이 있다. 이어서 「세주묘엄품」에 나오는 普賢菩薩과 普德勝菩薩, 普光幢菩薩, 普寶光菩薩, 普音幢菩薩, 普智菩薩, 普賢髻菩薩, 普覺音菩薩, 普清淨菩薩, 普光明菩薩 등 十普名菩薩이 앉아 있다. 이 반대편에는 鳩槃荼王, 龍王衆, 阿修羅王, 乾闥波王, 摩睺羅王, 迦樓羅王, 夜叉王衆, 緊耶羅王, 大梵天王, 執金剛神, 主海神, 主畫神, 主稼神, 主方神, 主風神, 主城神, 主空神, 主夜神, 道場神, 主樂神, 主地神, 主林神, 足行神, 主火神, 主河身, 主山神, 主空神, 主水神과 西方天王과 南方天王이 있다. 오른쪽과 마찬가지로 왼쪽에는 「세주묘엄품」의 十異名菩薩인 善勇猛菩薩, 大明德菩薩, 海月光菩薩, 功德智菩薩, 金剛齊菩薩, 普智日菩薩, 雲音海菩薩, 功德王菩薩, 香焰光菩薩, 大福光菩薩 등이 자리한다. 송광사 <화엄경소변상도>는 영통사 <화엄경소변상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諸大菩薩로 불렸던 보살들을 「세주묘엄품」과 「여래현상품」의 보살들로 구체화하고, 제9회 서다림회의 上首菩薩인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에 10대제자, 선재동자 등을 새로 더하여 『화엄경』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있다.

조선시대 불화 가운데 八相圖에서도 노사나불 설법회의 전개과정을 볼 수 있다. 팔상도의 녹원전법상을 보면, 노사나불을 중심으로 하는 설법회가 있다. 이 설법회는 조선시대 팔상도의 시원이 되고 있는 『月印釋譜』(1568년, 喜方寺 改版) <鹿苑轉法相>에서도 보인다. 두 개의 설법회 중 향 오른쪽의 설법회는 녹야원에서 행해지는 법회로 '鹿苑轉法'이라는 명칭이 있고, 그 왼쪽에는 노사나불을 주존으로 하는 설법회가 있다. 노사나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있고 주변에는 10위의 보살이 자리하고 있으며 대좌 앞에는 4명의 천자와 사천왕이 있다. 비록 설법회의 제목은 없지만 화엄경소변상도와 유사한 형식이다. 팔상도에서 녹원전법상과 함께 표현되는 이 설법회가 『화엄경』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다른 자료로 龍門寺 <八相圖>(1709)를 들 수 있다. 용문사 <팔상도>에서 녹원전법상은 상단 설법회 옆에 說大華嚴大法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다. 이 장면은 노사나불을 중심으로 10명의 보살과 화엄성중, 사천왕이 배열되어 있고 그 앞으로 講法하는 보살과 천왕 2명이 앉아 있다<sup>7)</sup>. 용문사 <팔상도>를 제외하고 다른 팔상도에서 화엄설법임을 밝히는 제목은 더 이상 보이지 않지만, 조선 후기 팔상도에서 이 설법회는 녹원전법보다 더 비중있는 畫題로



도 7 용문사 <팔상도>의 녹원진법상과 설대화엄대법, 조선 1709년, 비단에 채색, 223×98cm

다루어졌다.

이처럼 보리도량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석가가 대중을 위해 노사나불의 몸을 내어 『화엄경』을 설한다는 내용은 고려 충숙왕 15년(1328)에 浮庵無奇가 저술한 『釋迦如來行蹟頌』에서 찾을 수 있다.<sup>7</sup> 이러한 사상은 14세기 후반 화엄사상과 관련된 경전의 변상도에서 노사나불을 주존으로 등장시킬 수 있는 사상적 뒷받침이 되었을 것이다. 같은 내용은 이후 조선시대에 간행된 여러 경전에서도 자주 언급되었다. 대표적으로 17세 중엽에 간행된 『釋氏原流應化事蹟』은 『석가여래행적송』처럼 정각을 이룬 석가가 노사나불의 몸을 내어 원만수다라, 즉 『화엄경』을 설한다고 설명하면서 『80화엄경』의 구조와 39품을 소개하고 있다.<sup>8</sup>

14세기 후반에 등장한 노사나불 설법회는 조선시대에 화엄경소변상도와 팔상도의 화엄설법회를 통해 점차 화엄설법을 상징하는 도상으로 정착되었고, 조선 후

7 “第一時華嚴時者 如來初成正覺 在寂滅道場 四十一位法身大士 及宿世根熟天龍八部 一時圍遶 如雲籠月 爾時如來現舍那身 說圓滿修多羅 故名頓教.” 無奇, 『釋迦如來行蹟頌』, 『韓國佛教全書』 6(동국대학교출판부, 1994), p. 498下.

8 “佛華嚴經云 爾時如來 始成正覺 在寂滅場 四十一位法身大士 及宿世根熟天龍八部 一時圍遶 如雲籠月 爾時如來現盧舍那身 說圓滿修多羅 名為頓教 此經七處九會三十九品 說 世主妙嚴 如來現相 普賢三昧 世界成就 華藏世界 毘盧遮那如來名號 四聖諦 光明覺 菩薩問明 淨行 賢首 升須彌山頂 須彌頂上揚讚 十住 梵行 初發心功德 明法 升夜摩天宮 夜摩天宮偈讚 十行 十無盡藏 升兜率天宮 兜率天宮偈讚 十回向 十地 十定 十通 十忍 阿僧祇 如來壽量 諸菩薩住處 佛不思議法 如來十身相海 如來隨好 普賢行 如來出現 離世間 入法界 等 ……” 『華嚴大法』, 『釋氏原流應化事蹟』 卷第1, 佛巖寺 改版, 1673년.

기의 화엄칠처구회도를 구성하는 기본 설법회가 되었다.

조선 후기에 조성된 화엄칠처구회도는 송광사, 선암사, 쌍계사, 통도사에 전하였지만 현재 송광사 〈화엄칠처구회도〉와 통도사 〈화엄칠처구회도〉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 4점의 화엄칠처구회도는 화면구성과 표현양식에 따라 두 가지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80화엄경』의 칠처구회만을 표현한 것으로 송광사·선암사·쌍계사의 〈화엄칠처구회도〉이다. 이 세 점의 화엄칠처구회도는 앞서 살펴본 노사나불 설법회를 이혼 장면으로 재구성하였다. 세 점 모두 18세기 후반 호남지역에서 활동했던 화사집단이 그린 것으로 화면구성이 동일하고 양식도 유사하다. 둘째는 『화엄경』의 칠처구회에 새로운 도상이 결합된 통도사 〈화엄칠처구회도〉이다. 경상도 화사집단이 그린 것으로 앞의 세 점과는 화면구성도 크게 다르고 표현기법도 검은 바탕에 금니선묘로 제작하였다.

### Ⅲ. 송광사·선암사·쌍계사 화엄칠처구회도

#### 1. 화엄칠처구회도의 조성배경

현존하는 화엄경변상도 중 가장 시기가 올라가는 것은 돈황 막고굴에 당·오대에 제작된 6점의 〈화엄경변상도〉와 파리 기메 박물관 소장의 〈화엄경변상도〉이다<sup>8</sup>. 이 변상도들은 지상과 천상으로 연계되는 『화엄경』 설법 내용에 따라 3段3列로 설법회를 배치하였다. 이외에도 송대에 그려진 개화사의 〈칠처구회도〉와 남송시대 조성된 대족석굴 보정산 14굴의 〈칠처구회〉, 그리고 상화엄사 대웅보전에 그려진 〈칠처구회도〉가 있다. 그러나 중국의 화엄경변상도와 조선 후기 화엄칠처구회도는 주존이나 화면구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의 화엄칠처구회도는 조선 후기에 성행했던 화엄사상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발생한 불화형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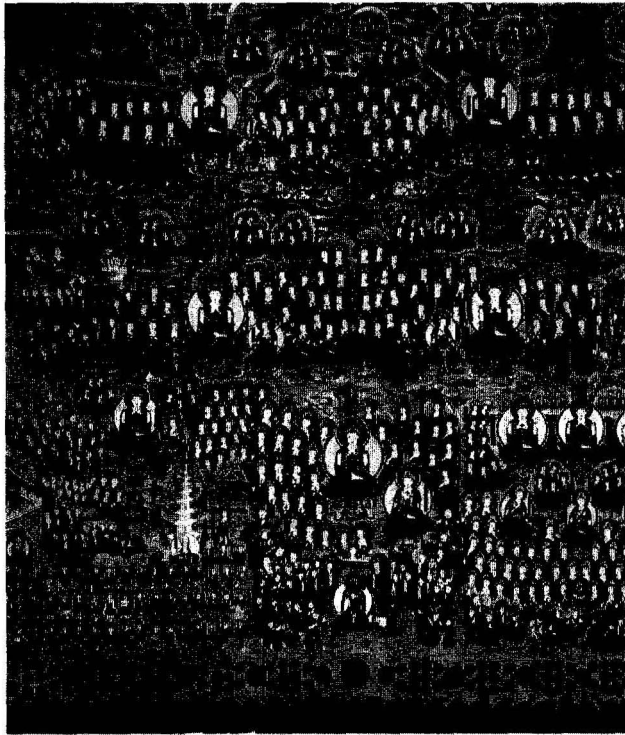
영조 46년(1770)에 제작된 송광사 〈화엄칠처구회도〉<sup>9</sup>는 현존하는 화엄칠처구회도 중 제작시기가 가장 앞서며 정조 4년(1780)에 제작된 선암사 〈화엄칠처구회도〉<sup>10</sup>와 정조 14년(1790)에 제작된 쌍계사 〈화엄칠처구회도〉<sup>11</sup>의 先例가 된다. 기록상으로는 영조 41년(1765)에 김룡사 화장암에 七處九會圖의 華嚴會를 제작하여 봉안하였다고 하나 현존하지

도 8 <화엄경변상도>, 五代 10세기 초, 파리 기메 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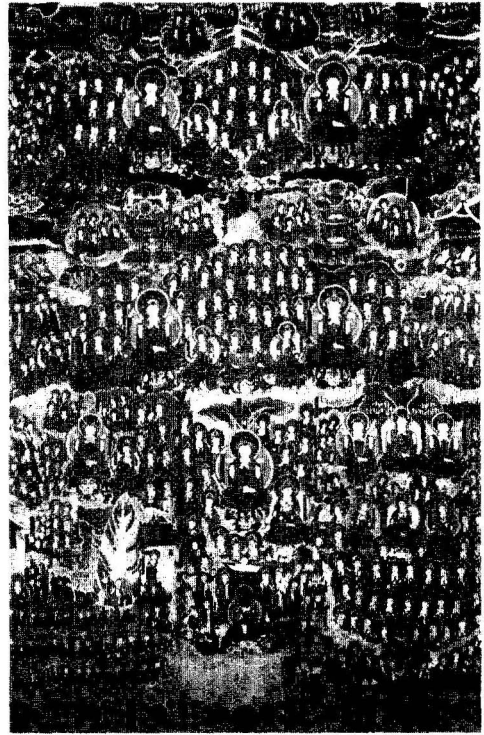


도 9 송광사 <화엄칠처구회도>, 조선 1770년, 비단에 채색, 281×255cm, 송광사 소장





도 10 선암사 <화엄칠처구회도>  
조선 1780년, 비단에 채색, 279×248cm



도 11 쌍계사 <화엄칠처구회도>  
조선 1790년, 비단에 채색, 287×171cm

않는다.<sup>9</sup>

송광사, 선암사, 쌍계사는 조계산과 지리산에 위치하며 지리적으로 서로 인접하고 있다. 조선 후기에는 浮休善修의 문중에서 배출한 碧巖覺性, 栢菴性聰, 無用秀蓮, 霜月璽筠, 默庵最訥, 蓮潭有一 등 뛰어난 화엄종사가 활동한 화엄사상 중심지이며, 대규모의 화엄대법회가 개최된 곳이기도 하다. 또한 이 지역은 송광사와 선암사를 중심으로 활동한 講僧의 인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조계산화파가 형성된 곳이기도 하다.

<sup>9</sup> “……重新之志 乃於乙酉春正月 募人鳩財邀幻手 而金之金也 繪之繪也 不月之內功告畢 卽華藏會上一部也 大悲石像一軀也 龍天神祇一衆也 噫 所謂花冠瓔珞 天衣莊嚴之屬爛益目化 如天中星月 皎皎碧落也 空裏燈燭光互也 七處九會之儀 寶陀巖窟之態 況移斯焉 眞華藏世界也 ……” 取如, 「括虛集」, 『韓國佛教全書』 10(동국대학교출판부, 1989), pp. 315上-中.

18세기 후반 송광사, 선암사, 쌍계사에서 활동했던 蓮華, 丕賢, 平三 등은 당시의 성행했던 화엄사상을 바탕으로 같은 형식의 화엄칠처구회도를 제작하였다. 세 점의 화엄칠처구회도 중 선암사 〈화엄칠처구회도〉를 그린 비현은 선암사 출신으로, 18세기 후반 丕賢畫派라는 화맥을 형성할 정도로 영향력이 컸던 화승이다. 그의 문하에서 快允, 評三, 極贊, 弘彦, 性絜 등을 포함한 여러 화승들이 배출되었다.<sup>10</sup> 비현을 비롯한 그의 제자인 쾌윤, 복찬 등은 선암사 〈화엄칠처구회도〉를 제작하였고, 비현의 제자인 평삼은 단독으로 쌍계사 〈화엄칠처구회도〉를 조성하였다. 이에 비해 송광사 〈화엄칠처구회도〉를 그린 화연과 비현의 직접적인 관계를 살펴볼 만한 자료는 없다. 다만 정조 1년(1777)에 비현과 그의 제자들이 泰安寺에서 불화를 조성하기에 앞서 화연이 태안사에서 불화를 조성하였고, 정조 4년(1780) 松廣寺 〈十六國師 眞影〉을 중수할 때 쾌윤, 복찬이 담당했다는 점으로 보아 비현화파에서 화연과 송광사 〈화엄칠처구회도〉의 존재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짐작된다. 이와 같이 18세기 후반에 조성된 세 점의 화엄칠처구회도는 화사 간에 직·간접적인 교류를 통해 동일한 형식의 불화를 제작하면서도 화사집단마다 고유한 존상 묘사와 색채사용으로 조금씩 서로 다른 화풍을 이루었다.

## 2. 화엄칠처구회도의 구성과 상징

송광사, 선암사, 쌍계사의 〈화엄칠처구회도〉의 구성은 地上說法會를 하단에 배치하고, 天上說法會를 상단에 둔 상하 이단구조이다. 삼도 1의 송광사 〈화엄칠처구회도〉의 배치도를 살펴보면, 지상설법회는 제1회 보리도량회를 가운데 두고 향 오른쪽에 제7·2·8회 보광명전회를 차례로 배치하고 향 왼쪽에는 제9회 서다림회가 자리한다. 천상설법회는 향 왼쪽에 제3회 도리천궁회와 제4회 야마천궁회가 있고, 그 반대쪽에는 제5회 도솔천궁회와 제6회 타화자재천궁회를 배치하였다. 송광사 화엄칠처구회도 배치도와 선암사·쌍계사의 화엄칠처구회도 배치도 삼도 2를 비교해보면, 선암사·쌍계사의 〈화엄칠처구회도〉는 보광명전회의 주존과 설주보살을 제2·7·8회 순으로 두면서 해당 보살들은 제7·2회·8회 순으로 배치하였다. 또한 선암사 〈화엄칠처구회도〉는 송광사 〈화엄칠처구회도〉와 화면 크기가 거의 같아

<sup>10</sup> 안귀숙, 「朝鮮 後期 佛畫僧의 系譜와 義謙比丘에 관한 研究(下)」, 『미술사연구』 9(1996), pp. 173-176.

제4회 야마천궁회		제6회 타화자재천궁회		
제3회 도리천궁회		제5회 도솔천궁회		
제9회 서다림회(본회)	제1회 보리도량회	제7회 보광명전회	제2회 보광명전회	제8회 보광명전회
(말회-복성법회)		제8회 화엄성중		
(말회-53선지식)				
제1회 보리도량회 연화장세계				

삽도 1 송광사 <화엄칠처구회도> 배치도

제4회 야마천궁회		제6회 타화자재천궁회		
제3회 도리천궁회		제5회 도솔천궁회		
제9회 서다림회(본회)	제1회 보리도량회	제2회 보살	제7회 보살	제8회 보살
(말회-복성법회)		제8회 화엄성중		
(말회-53선지식)				
제1회 보리도량회 연화장세계				

삽도 2 선암사·쌍계사 <화엄칠처구회도> 배치도

존상의 구성이 동일하지만 쌍계사 <화엄칠처구회도>는 화면 폭이 좁아지고 길이가 길어지면서 존상의 이름을 통일시키거나 생략하는 등 존상 구성에 변화가 크다. 세 점의 화엄칠처구회도 중 송광사 <화엄칠처구회도>는 구성이나 존상 표현에 있어 다른 두 화엄칠처구회도보다 『80화엄경』의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그려내고 있다.

각 설법회는 존상 배치에 따라 여러 형태를 이룬다. 제1회 보리도량회는 노사나불과 설주보살을 중심으로 위에는 보살과 여래가 있고 아래는 화엄성중이 자리하며 맨 하단에는 연화장세계가 가로로 길게 펼쳐져 있다도 12. 제2·7·8회 보광명전회는 노사나불·설주보살·보살·화엄성중이 층을 이루며 세로로 구성되었다도 13. 제3회 도리천궁회·제4회 야마천궁회·제5회 도솔천궁회·제6회 타화자재천궁회는 노사나불과 설주보살을 중심으로 좌우로 보살을 두고 이어 화엄성중이 오는 형식으로 가로로 길게 배치하였다도 14. 제9회 서다림회는 본회인 경우 천상설법처럼 가로로 존상들을 배치하고, 말회의 복성법회는 향 오른 쪽에서 왼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방식으로, 선재동자와 53선지식도는 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시 왼쪽으로 이어지는 S자 순서로 인물들을 배치하였다도 15.

각 설법회는 배경인 설법장소, 盧舍那佛, 說主菩薩, 十方諸佛, 諸菩薩, 華嚴聖衆으로 구성된다. 기본 구성에서 법회에 모인 보살들을 아래에서 위로 혹은 위에서 아래로, 또는 오른 쪽에서 왼쪽 순으로 배열하거나 양 옆으로 나누어 구성하느냐에 따라 설법회의 틀은 달라진



도 12 송광사 <화엄칠처구회도>의 제1회 보리도량회



도 13 송광사 <화엄칠처구회도>의 제2·7·8회 보광명진회



도 14 송광사 <화엄칠처구회도>의 제4회 아미친궁회



도 15 송광사 <화엄칠처구회도>의 제9회 서다림회

다. 보살의 수는 『화엄경』에서 서술되는 수인 10을 기준에 두고 배치하였고, 10~20여명 안팎의 보살들은 다시 『화엄경』의 방위 순서인 동, 남, 서, 북, 동북, 동남, 서남, 서북, 하, 상의 방위개념을 적용하여 十方을 상징하는 보살로 표현하였다. 또한 보살의 수가 많은 제6회 타화자재천궁회, 제7회 보광명전회, 제9회 서다림회는 경전에 적힌 보살 중에서 앞과 뒤의 보살만 선별하여 적거나 보살무리 중 첫 머리에 이름이 올라있는 보살을 대표로 삼아 표현하였다.<sup>11</sup> 이런 방식으로 수백 명의 보살들을 화면 내에 일목요연하게 그려내었다.

설법회의 변화는 노사나불의 신체에서 나오는 광명[放光]에서도 볼 수 있다. 『화엄경』에서 법회가 진행되면서 신체에서 나오는 광명은 점점 위로 상승했다 다시 내려

온다. 이는 법문이 점차 심오해짐을 상징한다. 그러나 화엄칠처구회도에서는 제1회 보리도량회를 중심으로 좌우대칭으로 전개되는 나머지 여덟 개의 설법회에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인지 노사나불의 방광의 위치를 경전과 다르게 표현하였다. 지상설법회에서 노사나불의 방광은 머리부분에 몰려있다. 제1회는 노사나불의 정수리와 양 눈에서 서광이 나온다. 3회의 설법이 행해지는 제2·7·8회 보광명전회의 경우, 가운데 노사나불은 양 눈에서 방광하고,

<sup>11</sup> 제6회 타화자재천궁에 모여든 보살들은 모두 38명의 보살들이지만 이 중 앞부분에 해당되는 金剛藏菩薩, 寶藏菩薩, 蓮花藏菩薩, 德藏菩薩, 蓮花德藏菩薩, 蘇利那藏菩薩과 맨 끝부분의 佛藏菩薩, 解脫月菩薩만이 표현되었다. 제7회 보광명전회는 103명의 보살이 등장하지만 이 중 앞에 등장하는 金剛慧菩薩, 無等慧菩薩, 義語慧菩薩, 嚴勝惠菩薩, 常捨慧菩薩, 那伽慧菩薩과 마지막 普眼菩薩, 佛日菩薩, 持佛金剛菩薩, 普眼境界菩薩만을 표현하고 나머지 보살들은 생략하였다. 제9회 서다림회 본회에 참석한 보살은 130명이다. 이 보살들은 13무리로 분류되며 이 중 大光菩薩을 제외하고 光焰幢菩薩, 地威力菩薩, 地藏菩薩, 普眼菩薩, 天冠菩薩, 梵王菩薩, 福德幢菩薩, 梵音菩薩, 法上菩薩, 光勝菩薩, 娑羅自在菩薩, 寂靜音菩薩, 須彌光覺菩薩 등 각 보살무리에 첫머리로 이름이 올라 있는 보살을 표현하였다.

양 옆의 노사나불은 발바닥에서 방광한다. 제9회의 노사나불은 양 눈에서 빛을 낸다. 제1·2·9회 노사나불은 방광을 통해 설법회의 통일감을 주고 있다. 천상설법회는 제3회와 제4회의 노사나불은 발가락과 양 무릎에서 빛이 나오고 반대편에 있는 제5회 노사나불은 다시 발바닥에서, 그리고 제6회 노사나불은 정수리에서 방광하는 등 좌우대칭으로 상승하는 구조를 하고 있다. 이 같은 표현은 경전 내용과 맞지 않으나 화면 내에서 설법처의 변화에 따라 법문의 깊이가 상승함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한 설법회는 많은 존상들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불, 보살, 화엄성중마다 이름을 적어 각 설법회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sup>12</sup> 각 존상의 이름을 가지고 칠처구회를 39품으로 다시 세분해서 살펴보면, <표 1>처럼 『80화엄경』에서 그림으로 표현된 품과 내용이 드러나게 된다.

品數가 적은 제4회 야마천궁회·제5회 도솔천궁회·제6회 타화자재천궁회·제8회 보광명전회·제9회 서다림회 등은 해당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만, 제1회 보리도량회·제2회 보광명전회·제3회 도리천궁회·제7회 보광명전회 등은 몇 개의 품을 생략하기도 하였다. 이 중 품수가 많은 설법회인 제1회 보리도량회는 6품 중 「세주묘업품」·「여래현상품」·「보현삼매품」·「화장세계품」이, 제2회 보광명전회는 6품 중 「여래명호품」·「사성제품」·「광명각품」·「보살문명품」이, 제3회 도리천궁회는 6품 가운데 「승수미산정품」·「수미정상계찬품」·「십주품」만이 표현되었다. 제7회 보광명전회는 11품 중 「십정품」·「여래출현품」 등은 표현되었고 나머지 품은 생략되었다. 이에 비해 제4회 야마천궁회는 4품인 「승야마천궁품」·「야마천궁계찬품」·「십행품」·「무진장품」이, 제5회 도솔천궁회는 3품인 중 「승도솔천궁품」·「도솔천궁계찬품」·「십회향품」이, 1품만으로 구성된 제6회 타화자재천궁은 「십지품」, 제8회 보광명전회는 「이세간품」, 제9회 서다림회의 「입법계품」 등이 모두 표현되었다. 아홉 번 걸쳐 설해지는 설법회 중에서 경전의 내용을 가장 충실이 표현한 것은 제1회 보리도량회와 제9회 서다림회이다. 제1회 보리도량회는 조선시대에 유통된 화엄경소변상도에 의해 어느 정도 체제가 확립되어서인지 「세주묘업품」·「여래현상품」을 중심으로 각 품을 적당히 분배하여 구성하였다. 제9회 서다림회는 본회와 말회, 선재동자의 53선지식 등 다른 품보다 내용이 많지만 53선지식의 역참순서가 바뀐 것 외에는 전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듯 묘사하였다. 그외 나머지 설법회는 화엄사상과 관련된 중요 품보다는 설법장면에 치중해서 표현

<sup>12</sup> 각 설법회에 등장하는 존상의 이름과 비교는 이용윤, 앞의 논문, pp. 197-221 참고.

표 1 『80화엄경』과 송광사〈화엄칠처구회도〉의 내용 비교표

		八十華嚴經		松廣寺 華嚴頓畫	
七處九會	39品	盧舍那佛 放光	說主菩薩	39品 관련 장면	盧舍那佛放光 說主菩薩
제1회 보리도량회	世主妙嚴品		普賢菩薩	석가와 노사나불의 一體, 십보명보살과 십이명보살 화엄성중의 偶贊	정수리 양눈 放光
	如來現相品	齒眉二放光		노사나불의 방광, 보살의 계찬	
	普賢三昧品			보현입삼매	
	世界成就品			하단의 연화장세계	
	華藏世界品				
제2회 보광명전회	毘盧遮那品		文殊菩薩		양 눈 放光
	如來名號品			보광명전, 노사나불과 제2회 首보살	
	四聖諦品			문수보살	
	光明覺品	足輪放光		노사나불의 방광	
	菩薩問明品			문수보살과 제2회 首보살과 각 방위를 상징하는 首보살	
제3회 도리천궁회	淨行品		法慧菩薩		발가락 放光
	賢首品				
	昇須彌山頂品			十一層莊嚴殿, 노사나불과 도리천왕, 수미산	
	須彌頂上偈讚品	兩足指放光		법혜보살과 '十惠' 보살과 각 방위를 상징하는 '惠' 보살, 노사나불의 방광	
	十住品			법혜보살과 심혜보살	
제4회 야마천궁회	梵行品		功德林菩薩	법혜보살과 도리천왕	양 무릎 放光
	初發心功德品				
	明法品				
	昇夜摩天宮品			야마천궁과 노사나불	
제5회 도솔천궁회	夜摩天宮偈讚品	足上放光	金剛幢菩薩	공덕림보살과 보살, 노사나불의 방광	발바닥 放光
	十行品			공덕림보살과 보살	
	十無盡藏品			공덕림보살과 보살	
제6회 자재천궁회	昇兜率天宮品		金剛藏菩薩	一切摩尼寶莊嚴殿, 노사나불	정수리 放光
	兜率天宮偈讚品	膝輪放光		5회의 幢보살, 노사나불방광	
제7회 보광명전회	十迴向品	眉間放光	普賢菩薩	금강당보살	발바닥 放光
	十地品			摩尼寶藏殿, 노사나불과 법회에 참석한 38명의 보살중 8명의 보살, 노사나불의 방광	
	十定品			103명의 보살 중 10명의 보살	
	十通品			실주 보현보살	
	十忍品			실주 보현보살	
	阿僧祇品			世尊	
	如來壽量品			心王菩薩	
	諸菩薩住處品			心王菩薩	
	佛不思議法品			靑蓮華菩薩	
	如來十身相海品			普賢菩薩	
如來隨好功德品		世尊			
제8회 보광명전회	普賢行品		普賢菩薩	실주 보현보살	발바닥 放光
	如來出現品	眉間白毫		노사나불의 방광	
제9회 서다림회	離世間品		普賢菩薩	說主 보현보살과 請主 보혜보살, 그리고 8회 보살, 화엄성중	양 눈 放光
	入法界品	眉間白毫放光	世尊	근본법회에 모여든 보살과 화엄성중	
				가지법회	선재동자와 53선지식
				복성법회장면	

하였다. 이것은 화엄경소변상도나 팔상도 녹원전법상의 화엄설법회의 기존 도상을 바탕으로 화엄칠처구회도를 구성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이처럼 세 점의 화엄칠처구회도는 마치 경전을 읽어나가듯 『80화엄경』의 전체 내용을 서술적인 방식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 중 송광사 〈화엄칠처구회도〉는 경전 내용을 가장 충실하게 그려내었고, 선암사 〈화엄칠처구회도〉와 쌍계사 〈화엄칠처구회도〉는 앞서 제작된 송광사 〈화엄칠처구회도〉를 따르면서도 설법회가 잘못 묘사되거나 생략되기도 하였다.

#### IV. 통도사 화엄칠처구회도

통도사 〈화엄칠처구회도〉는 앞에서 보았던 세 점의 화엄칠처구회도와 달리 『화엄경』 외에 새로운 도상을 수용하여 표현하였다도 16. 삽도 3에서 보듯이 화면구성은 크게 『화엄경』의 칠처구회와 『천수경』의 천수관음보살과 준제관음보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sup>13</sup> 이는 승려들의 수행방식인 三門修業을 반영한 것이다. 삼문수업이란 禪修와 經學 그리고 念佛(眞言)을 함께 닦는 것으로, 이에 관한 경전으로는 조선 후기에 振虛捌關이 저술한 『三門直指』(1769)가 있다. 『삼문直指』는 念佛門, 圓頓門, 徑載門 등 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염불문은 『천수경』의 내용이 실려 있고 그 핵심은 「千手天眼觀自在菩薩廣大圓滿無碍大悲心陀羅尼」와 「准提大明陀羅尼」이다.<sup>14</sup> 원돈문은 화엄을 중심으로 하는 教學門을 설명하였고,<sup>15</sup> 경재문은 禪旨修究의 요체를 설명하고 있다.<sup>16</sup> 이처럼 통도사 〈화엄칠처구회도〉에는 화엄사상을 대변하는 원돈문과 秘密法을 겸행하는 염불문이 결합되어 있다. 이 화엄칠처구회도를 봉안했던 보광전은 수행자의 참선공간이다. 보광전에 화엄칠처구회도를 봉안했다는 것은 선과 교와 염불을 함께 닦는 조선 후기의 수행방식을 공간적,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이라 하겠다. 보광전은 순조 7년(1807)에 泓溟帆觀이 文性, 勝察, 勝弘, 琦環 등의 도움을 받아 세워졌다.<sup>17</sup> 흥

13 鎌田茂雄은 통도사의 화엄탱화에 노사나불, 금강보살, 천수관음이 묘사되어 있는 것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유행한 밀교의 영향을 받은 華嚴經曼多羅로 보고 있다. 鎌田茂雄, 『朝鮮佛敎史』(東京大學出版部, 1987), p. 275.

14 捌關, 「三門直指」, 『韓國佛敎全書』 10(동국대학교출판부, 1989), pp. 139中-154上.

15 팔관, 앞의 책, pp. 154上-158上.

16 위의 책, pp. 158-165.

상단	제6회 타화자재천궁회	제5회 도솔천궁회	A. 노사나불	제4회 야마천궁회	제3회 도리천궁회
중단	제9회 서다림회 (분회)	제8회 보광당회	제7회 보광명전회	제2회 보광명전회	제1회 보리도량회
하단	C. 준제관음	윤 장 대	제9회 서다림회(말회) 53선지식 복성법회	B. 천수관음	

삼도3 통도사〈화엄칠처구회도〉 배치도



도 16 통도사〈화엄칠처구회도〉, 조선 1810년, 비단에 금니선묘, 194×265cm, 통도사성보박물관 소장

명범관과 문성은 3년 뒤에 통도사 <화엄칠처구회도>를 제작할 당시에는 主管과 化士를 맡기도 했다. 불화는 검은 바탕에 금니선묘로 그려졌으며, 그린 이는 통도사에서 주로 활동했던 戒成, 天守, 瑄甫, 勝活, 智閑 등이다.

## 1. 통도사 화엄칠처구회도의 구성과 상징

먼저 칠처구회의 구성을 보면, 중단·하단에 지상설법을 두고 상단에 천상설법을 배치하였다. 지상설법은 향 오른쪽부터 제1회 菩提場會, 제2회 普光幢會, 제7회 普光明殿會, 제8회 普光幢會, 제9회 逝多林會의 본회 등이 중단에 있고, 제9회 서다림회의 말회는 하단 중앙에 위치한다. 천상설법은 향 오른쪽부터 제3회 도리천궁회, 제4회 야마천궁회, 제5회 도술천궁회, 제6회 타화자재천궁회가 오고<sup>18</sup> 중단 중앙에는 『화엄경』의 주존인 노사나불이 자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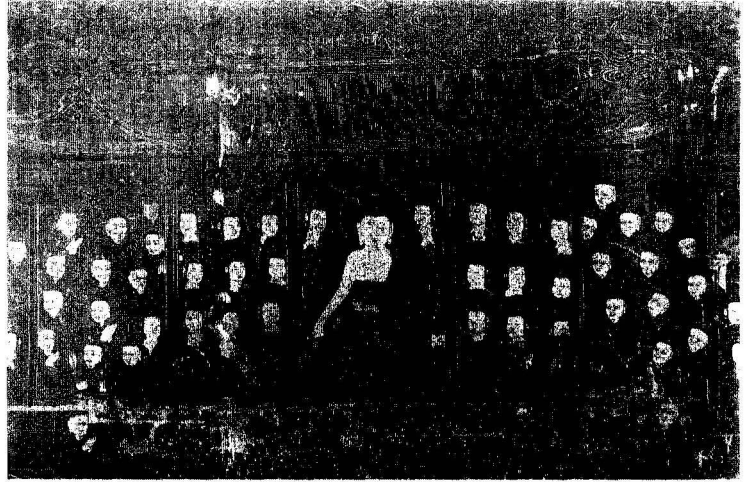
통도사 <화엄칠처구회>의 설법회는 각 존상마다 이름을 밝힌 송광사·선암사·쌍계사의 <화엄칠처구회도>와 달리 간단히 설법회의 이름만을 적고 있다. 설법회 구성은 노사나불이 없이 說主菩薩을 중심으로 불, 보살, 화엄성중들이 둥글게 에워싼 형식이다.

제1회 보리장회는 배경으로 보리수가 서 있고, 설법회는 난간을 중심으로 二段으로 구성되어 있다. 난간 안에는 왼쪽을 향해 설법인을 한 보현보살이 앉아 있고 그 위로 化佛이 떠 있다. 보현보살 주변으로 10명의 보살이 앉아 있다. 난간 앞에는 2명의 天衆과 사천왕이 서 있고 난간 밖에는 화엄성중이 자리하고 있으며 설법회 상단에는 十方佛이 있다<sup>17</sup>. 제2회 보광당회는 보광명전에서 법회를 행하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문수보살은 연화를 들고 반가좌로 앉아 있고 그 주위로 합장한 11명의 보살과 화엄성중이 있으며 난간 밖에는 三目多臂형상의 신중과 사천왕이 있다.<sup>19</sup> 제7회 보광명전회 역시 보광명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설법회

17 “…… 通渡寺大光殿之傍有所謂普光殿也修行者參禪之所也勝立者泓溟軌觀大師與禪客文性勝察勝弘□等同心展鳩也禪流數十人皆跏坐擊拂念誦極樂世界…….” 「嶺左梁山郡北鷲樓山通渡寺寶光殿新翻記 懸板」, 1807년.

18 각 회의 이름은 통도사 화엄칠처구회도에 적힌 명문을 그대로 따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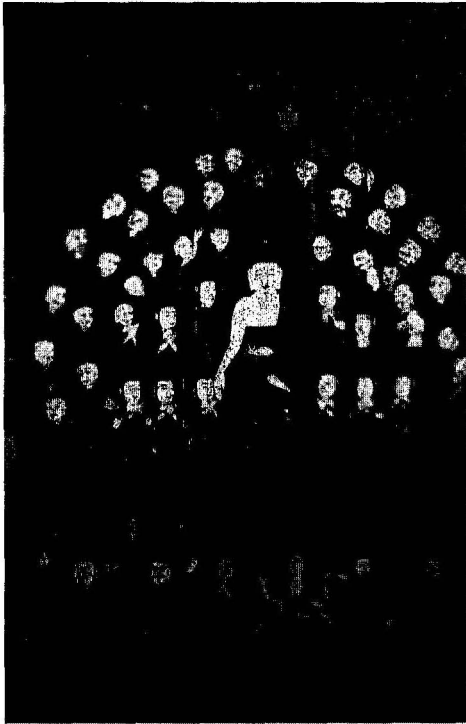
19 통도사 <화엄칠처구회도>에서 제1회 보리도량회의 성중을 제외하고는 각 숲의 난간 오른쪽에는 사천왕과 함께 多臂菩薩形의 존상이 있다. 이 존상은 이마에 눈 하나가 더 있는 얼굴에 팔은 8개이며 손은 합장인, 선정인, 또는 설법인을 하거나 구슬을 든 3目8臂의 보살형이다. 존상의 명칭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8세기 말부터 신중탱화의 친부의 신으로 등장하는 삼목팔비의 大自在天으로 추정된다.



도 18  
통도사 <화엄칠처구회도>의 제7회 보광명전회

도 17  
통도사 <화엄칠처구회도>의 제1회 보리도량회

이다. 설주는 세존이고 주위에는 다른 회보다 많은 보살과 성중이 모여 있다. 난간에는 삼목다비의 신중과 사천왕, 1명의 신장이 자리한다. 경전에서 제7회 보광명전회는 11품으로 구성되며, 4명의 설주가 등장한다. 11품 가운데 「십정품」·「십통품」·「십인품여래십신상해품」·「보현행품」·「여래출현품」 5품의 설주는 보현보살이고, 「이승지품」·「여래수호공덕품」의 설주는 세존이며, 「수량품」·「제보살주처품」에서는 심왕보살이 설주이고, 「불부사의법품」은 연화장보살이 설주로 나온다. 제7회 보광명전회에서 비중있는 설주는 보현보살이지만 통도사 <화엄칠처구회도>에서는 세존을 설주로 내세우고 있다<sup>18</sup>. 제8회 보광당회도 보광명전에서 행해지는 설법으로, 연꽃을 든 보현보살이 오른쪽을 향해 반가좌로 앉아 있고 그 주변으로 10명의 보살과 성중이 모여 있다. 난간 밖에는 삼목다비의 신중과 합장한 천왕, 그리고 사천왕이 있다. 제9회 서다림회는 두 개의 나무를 배경으로 난간 안에는 세존이 앉아 있고 세존 위에는 화불이 있다. 세존 주변에는 10명의 보살이 있으며, 난간 앞에는 삼목다비의 신중을 포함해 사천왕, 위태천이 서 있다.<sup>20</sup> 그리고 난간 주위로 신중이, 상단에는 시방제불이 있다<sup>19</sup>. 이 장면은 제9회 서다림회의 본회를 그린 것이다. 이 법회에서 세존은 삼매에



도 19 통도사 <화엄칠처구회도>의 제9회 서다림회



도 20 통도사 <화엄칠처구회도>의 제9회 서다림회의 복성법회

들이가 설법을 행하는데, 바로 이 내용에 의거해 설주 자리에 세존이 표현된 것이다.<sup>21</sup>

『화엄경』의 마지막 품인 「입법계품」에서 선재동자와 53선지식은 말회에 해당되며 통도사 <화엄칠처구회도>에서는 하단 중앙에 자리한다. 선재동자와 53선지식은 두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른쪽은 박락이 심해 다층탑의 모습은 희미해졌지만 ‘福城東畔古塔’이란 명문은 또렷이 남아 있다<sup>20</sup>. 이 탑은 북성 동쪽에 있는 沙羅 숲의 대탑으로 이곳에서 선재동자는 첫 번째 선지식 문수보살을 만나게 된다. 송광사·선암사·쌍계사의 <화엄칠처구회

20 위태천은 화엄성증은 아니지만 『화엄경』을 근거로 하는 조선 후기의 신증탱화에서 天龍部를 이끄는 신증으로 널리 숭상되었다. 그 영향으로 화엄칠처구회도의 화엄성증으로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제9회 서다림회에 화엄성증으로 표현된 듯하다

21 『화엄경』에서 제9회 서다림회의 설주는 세존이다. 이 때문에 송광사·선암사·쌍계사의 <화엄칠처구회도>에서 제9회 서다림회는 설주자리에 보현보살을 두면서도 설주라는 명칭을 생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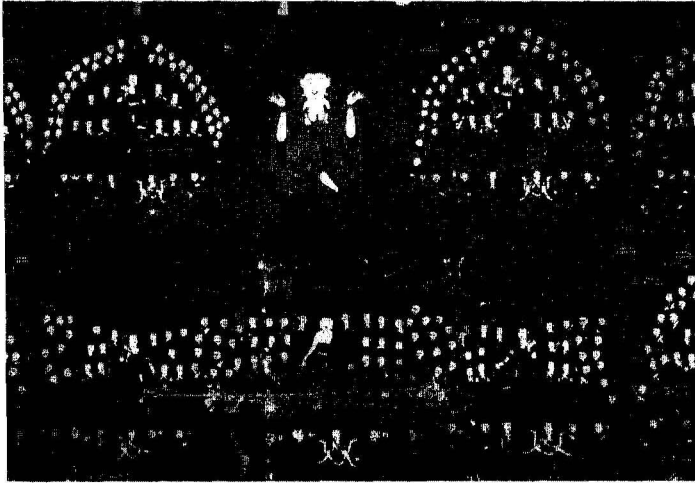


도 21  
 통도사 <화엄칠처구회도>에서  
 제9회 서다림회의  
 선재동자와 53선지식

도)는 이 장면을 서술적으로 묘사했지만 통도사 <화엄칠처구회도>는 다층탑만으로 문수보살과 선재동자의 만남과 선재동자의 구도의 시작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였다. 다층탑 옆에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중심으로 수많은 성중들이 모여 있다<sup>21</sup>. 어린 동자의 정수리에 오른손을 올려놓은 보살은 문수보살이다. 이는 선재동자가 다시 문수보살 만나기를 원하자 문수보살이 멀리서 오른손을 내어 선재동자의 정수리를 만진다는 내용을 표현한 것이다. 문수보살의 반대편에 자리한 보살은 보현보살이다.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은 선재동자가 만나는 마지막 선지식들이자 53선지식 중 가장 중요한 선지식이다. 두 보살 주위에는 보살과 대중이 에워싸고 있는데, 일반인은 삿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 매우 흥미롭다.

이 칠처구회 구성에 핵심은 노사나불과 보광명전에서 행해지는 제2·7·8회의 설법회이다. 세 개의 전각으로 그려진 보광명전회는 다른 설법회와는 독립된 성격을 띠고 있다. 제7회 보광명전회의 설주가 세존인 점은 상단의 노사나불과 제2회 보광당회의 설주 문수보살, 제8회 보광당회 설주 보현보살과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는 세존을 중심으로 제2회의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결합되어 비로자나불로 완성된다는 三聖圓融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고 이는 상단의 노사나불과 중단의 세존을 연결하여 세존이 노사나불과 일체가 된다는 사상을 보여주고 있다<sup>22</sup>.

<sup>22</sup> 三聖圓融은 李通玄이 『新華嚴經論』에서 비로자나불과 문수보살, 보현보살의 관계를 설명한 사상으로 문수를 理로써 行을 會하고 보현은 行으로써 理를 會하여 體用相徹하여 一眞法界를 이룬다고 한다(『新修大藏經』 36권).



도 22 통도사 <화엄칠처구회도>의  
제2·7·8회 보광명전회와 노사나불



도 23 통도사 <화엄칠처구회도>의 윤장대

통도사 <화엄칠처구회도>에서 새롭게 첨가되는 도상은 모두 하단에 나타난다. 이 중 선재동자와 53선지식 장면의 오른쪽에는 사자와 위에 화려하게 장식된 육각형의 윤장대를 돌리는 승려가 있다<sup>23</sup>. 윤장대는 경전을 안치하는 庫藏의 의미로, 經藏시설 중 하나이지만 단순히 聖典을 안치하는 경장과는 성격이 다르다. 윤장대를 돌리는 것은 受持讀誦의 공덕과 같다고 한다.<sup>23</sup> 『화엄경』에는 윤장대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조선 후기의 교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형성되었던 경전신앙과 관련되어 있다고 짐작된다. 경전을 봉안하는 윤장대를 돌린다는 것은 수지공덕뿐만 아니라 경전의 중요성과 학문 성취의 염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선재동자와 53선지식이 自力の 實踐行으로 보살수행단계를 표현한 실천적인 화엄

p. 740下). 清源은 원융사상으로 파악하는 것은 이통현을 따르고 있지만 정관은 보현을 理로 문수를 智로 보고 있다. 「三聖圓融觀門」, 『新修大藏經』 45권, pp. 671-672.

<sup>23</sup> 윤장은 중국 梁나라의 傅翁善慧大師가 글자를 알지 못하거나 불경을 가까이 할 시간이 없는 중생을 위해 만든 것으로 신심이 있는 자가 한 번 돌리면 看讀의 功과 같다고 한다. 윤장의 선혜대사 기원설은 『鐫世文集』 第12 「無爲軍崇壽禪院轉輪大藏記」과 『釋門正統』 第3 「塔廟志」, 『續高僧傳』 第25 傅翁傳 참고(『望月佛敎大辭典』 1, pp. 597下-599上 재인용).

을 의미한다면 윤장대는 경전을 중심으로 하는 이론적인 화엄을 상징한다고 하겠다.

## 2. 화엄칠처구회도의 천수관음과 준제관음보살

통도사 <화엄칠처구회도>의 큰 축은 상단에 자리한 노사나불과 하단 좌우에 자리한 천수관음보살과 준제관음보살이다. 노사나불은 『화엄경』을, 천수관음보살과 준제관음보살은 『천수경』을 대변한다. 이처럼 『화엄경』과 『천수경』이 조합되는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조선 후기 수행방식인 삼문수업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밀교에서 관음신앙은 變化觀音에 의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천수관음보살과 준제관음보살은 眞言系의 六觀音인 聖觀音, 十一面觀音, 千手觀音, 准提觀音, 馬頭觀音, 如意輪觀音에 속한다.<sup>24</sup> 육관음 중 천수관음보살과 준제관음보살이 함께 조성되는 연유는 천수관음보살에 관한 의례집 발간과 관련이 있다. 현행 사찰에서 사용하는 『千手經』의 구조를 살펴보면, 「准提眞言讚」·「歸依准提」·「准提眞言」·「准提後頌」 등 독립적인 성격을 띤 준제관음보살의 진언독송 부분이 첨가되어 있다. 『천수경』에 준제진언이 첨가되기 시작한 것은 진허팔관이 지은 『삼문직지』부터이다.<sup>25</sup> 실제로 준제진언과 같은 준제관음보살의 신앙은 『천수경』과는 관련이 없으나 관음신앙이라는 관점에서 수용되었고 『천수경』의 성행으로 천수관음보살과 준제관음보살이 함께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sup>26</sup>

통도사 <화엄칠처구회도>에서 하단 오른쪽에 자리한 천수관음보살은 물결 이는 수면 위로 솟은 연화좌 위에 앉아 있다도<sup>24</sup>. 천수관음보살의 원명은 千手千眼觀自在菩薩이며 관세음보살의 無限變現으로 나타나는 化身이다. 千手千眼의 형상은 중생의 구제를 위해 천 개의 손과 손마다 하나의 눈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sup>27</sup> 그러나 조각이나 불화로 제작될 때는 보통 42수로 표현되었다. 2수는 관음의 손이고 나머지 40수는 천수를 간략하게 표현한 것으로 一手는 중생윤회의 세계인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四州, 欲界六天, 色界六天, 無色界四天

<sup>24</sup> 佐和陸研, 『佛像圖典』(吉川弘文館, 1962), p. 71.

<sup>25</sup> 正覺 著, 『천수경연구』(운주사, 1996), p. 104, pp. 135-136, 251-259.

<sup>26</sup> 正覺 著, 위의 책, p. 147.

<sup>27</sup> 「千手千眼觀世音菩薩姥陀羅尼」, 『新修大藏經』 20권, p. 106下와 「千光眼觀自在菩薩秘密法經」, 『新修大藏經』 20권, p. 120上 참고.

도 24  
 통도사 <화엄칠처구회도>의  
 천수관음보살



의 25세계 중생을 구제하고 40수와 25세계가 대응하여 千수가 된다고 한다. 따라서 천수관음보살의 42수는 중생의 각기 다른 구제를 의미한다. 통도사 <화엄칠처구회도>의 천수관음보살도 42手로 合掌手, 施無畏手, 甘露手 외에는 나머지 손에 각각 지물을 들고 있다. 이 수인들은 『千手千眼觀世音菩薩大悲心陀羅尼』에서 소개한 41手の 도상을 따르고 있다.<sup>28</sup>

통도사 <화엄칠처구회도>의 천수관음보살은 오른쪽 뒤에는 대나무 세 그루가 솟아있고 왼쪽에는 용왕이, 오른쪽에는 정병을 든 선재동자가 자리한다. 천수관음보살도에 선재동자가 등장하는 것은 고려시대의 <千手千眼觀音圖>와 조선시대 불화 중 중종 27년(1532)에 그려진 <천수천안관음도>를 들 수 있다. 용왕이 등장한 가장 이른 불화는 京都 大德寺 소장의 <水月觀音圖>이며, 조선시대에 와서는 용왕은 선재동자와 짝을 이루면서 본격적으로 관음보살도를 구성하는 도상으로 자리하였다도 25.<sup>29</sup> 통도사 <화엄칠처구회도>의 천수관음보살은

<sup>28</sup> 『千手千眼觀世音菩薩大悲心陀羅尼』, 『新修大藏經』 20권, pp. 117-119.

<sup>29</sup> 일본 京都 大德寺 소장의 <수월관음도>에서 용왕과 그의 권속은 우리나라 落山信仰과 관련하여 해석하고 있지만 이 인물을 용왕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다. 다만 明代 宣德 7년(1432)에 판각된 『佛說觀世音菩薩救苦經』의 변상도와 唐本(중국본)을 模刻한 『佛頂心陀羅尼經』 변상도(1485), 15세기작으로 추정되는 明代의 <수월관음상>(캐나다 로얄 온타리오 미술관 소장), 조선시대에 조성된 몇 개의 수월관음도에서 관복에 홀을 들고 있는 용왕이 선재동자와 함께 표현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수월관음도에 용왕의 도상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조선시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동주, 「高麗佛畫-幀畫를 중심으로」, 『한국의 미』 7 高麗佛畫(중앙일보사, 1981), pp. 199-200; 강희정, 「高麗 水月觀音圖像의 淵源에 대한 재고찰」, 『미술사연구』 8(1994), pp. 3-32.



도 25 <금니수월관음도>, 조선 16세기,  
비단에 금니선묘, 54.2×39cm, 호암미술관 소장

다른 관음보살도에 나타난 선재동자, 대나무, 정병, 용왕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차용하여 표현하였다.

통도사 <화엄칠처구회도>의 하단 왼편에는 천수관음보살과 짝이 되는 준제관음보살이 자리한다. 준제관음보살은 觀에 따라 2臂에서 80臂로 나타나기도 하나 대부분 준제관음보살은 『七俱胝佛母所說准提陀羅尼經』과 『七俱胝佛准提大明陀羅尼經』의 畫像法에 따라 3目18臂의 형상을 하고 있다. 화상법에 소개된 준제관음보살의 형상을 정리하면, “황백색의 몸에 3目の 18臂의 형상에 보관과 영락, 팔찌를 착용한 보살상이다. 준제관음의 광배는 원형이고水池에서 솟아오른 연화좌 위에 걸가부좌하고 있으며 연화좌 밑에는 難陀龍王과 鳩波難陀龍王이 연꽃줄기를 잡고 있다. 왼쪽에는 持誦者(혹은 聖者)가 손 향로를 들고 준제관음

을 쳐다보고 준제관음도 그를 응시하고 있다. 준제관음 위에는 二淨居天을 그린다.”라고 적고 있다. 그러나 18臂마다 든 지물에 대해서 두 경전의 내용은 조금씩 다른데 이를 정리하면, 맨 위의 수인은 설법인을 취하고, 오른쪽 두 번째 손에는 시무인, 세 번째 손에는 검을 쥐고 있으며, 네 번째 손에는 보만을, 다섯 번째 손에는 구연과를, 여섯 번째 손에는 월부를, 일곱 번째 손에는 창(鉤)을, 여덟 번째 손에는 금강저를, 아홉 번째 손에는 엄주를 잡고 있다. 왼쪽의 두 번째 손에는 여의보당을, 세 번째 손에는 활짝 핀 홍연화를, 네 번째 손에는 군지를, 다섯 번째 손에는 견색을, 여섯 번째 손에는 바퀴를, 일곱 번째 손에는 상구를, 여덟 번째 손에는 병을, 아홉 번째 손에는 반야경책을 들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sup>30</sup>

<sup>30</sup> “次說准提佛母畫像法……身黃白色結跏趺坐坐蓮花上身佩圓光著輕縠如十波羅蜜菩薩衣上下皆作白色復有白衣角絡瓔珞頭冠臂環持著螺鈿檀慧著寶環其像面有三目十八臂像上二手作說法相右第二手作施無畏第三手



도 26  
통도사 <화엄칠처구회도>의  
준제관음보살

통도사 <화엄칠처구회도>에서 준제관음보살은 이 화상법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준제관음보살은 수면 위로 피워 오른 연화좌에 앉아 있으며 형상은 3目18臂이다<sup>도 26</sup>. 18비의 수인은 가슴 부근에는 說法印을 취하고 무릎 위에는 禪定印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14臂 중 오른손은 施無畏印에 雙劍, 念珠, 具緣果, 越斧, 鉤, 金剛杵 등의 지물을 잡고, 왼손은 如意寶幢, 蓮花, 淨瓶, 索, 輪, 螺, 瓶 등의 지물을 쥐고 있다. 화상법에는 오른손에 寶鬘과 왼손에 般若經篋을 들고 있지만 여기서는 禪定印의 수인을 취하고 있다. 연화좌 아래에는 화상법 그대로 2명의 용왕이 연꽃 줄기를 잡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준제관음보살은 고려시대의 鏡像과 조선시대의 불화에서 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 제작된 준제관음보살은 현재까지 불화 1점, 경상 2점이 있다. 고려시대의 준제관음보살도는 화상법에서 서술한 3목18비가 아닌 2目8臂의 형상이다.<sup>31</sup> 경상에 표현된 준제관음보살은 3목18비의 준제관음보살이 연화좌에 앉아 있는 모습과 2목12비의 준제관음보살이

執劍 第四手持寶鬘 第五手掌俱緣菓 第六手持越斧 第七手執鉤 第八手執金剛杵 第九手持念珠 左第二手執如意寶幢 第三手開敷紅蓮花 第四手軍持 第五手持索 第六手持輪 第七手商仗 第八手賢瓶 第九手掌般若梵篋 蓮花下畫水池 池中難陀龍王鳩波難陀龍王拓蓮花坐 左邊畫持誦者 手執香爐瞻仰聖者 准提佛母矜憫持誦人 眼下顧視上畫二淨居天子 一名俱索陀天子 手持花鬘向下 承空而來供養聖者 …….” 『新修大藏經』 20권, p. 184下; 『望月佛教大辭典』 3, pp. 2526-2527.

31 『高麗·李朝의 佛敎美術展』(山口縣立美術館, 1997), p. 145. 『고려불화소재불명작품』 중 도판 3 준제관음보살상 참조.



도 27

〈불설칠구지불모심대준제다라니경변상도〉,  
일본 1704년, 복판본, 황벽산 개판

연화좌에 앉아 있고 그 아래로 2명의 용왕이 있는 모습이다.<sup>32</sup> 조선시대에 준제관음보살을 그린 불화로는 호암미술관 소장의 〈准提觀音圖〉, 대흥사 소장의 〈准提觀音圖〉, 동국대박물관 소장의 〈准提觀音菩薩圖〉 등이 있다. 호암미술관 소장의 〈준제관음도〉는 萬曆年間(1573-1615)에 제작된 불화로 수면 위로 솟은 흰 연화좌에 3목18비의 준제관음보살이 앉아 있고 연화좌 아래에는 2명의 용왕이 연꽃 줄기를 잡고 있다. 18臂의 수인은 合掌印과 禪定印을 취하고 있으며 나머지 14臂 중 오른손은 施無畏印, 劍, 念珠, 蓮花, 越斧, 鉤, 金剛杵를, 왼손은 如意寶幢, 蓮花, 瓶, 索, 輪, 螺, 具緣果 등 수인과 지물을 들고 있다.<sup>33</sup> 대흥사 소장의 〈준제관음도〉(19세기 중엽)도 3목18비의 준제관음보살이다. 수인은 역시 설법인과 선정인을 하고 나머지 손인 오른손은 시무외인과 검, 연화, 구연과, 월부, 창, 금강저, 염주를 쥐고, 왼손은 여의보당, 연화, 정병, 삭, 輪, 螺, 瓶, 般若波羅蜜經篋을 들고 있다. 마찬가지로 연화좌 아래에는 연잎을 탄 2명의 용왕이 연꽃 줄기를 잡고 있다. 동국대박물관 소장의 〈준제관음보살도〉(조선 후기)의 준제관음보살도 3목18비의 형상이다. 합장을 한 수인을 제외하고는 금강

32 郭東錫, 「高麗 鏡像의 圖像的 考察」, 『美術資料』 44(1989), pp. 101-105, p. 88 도 28, p. 90 도 29 참고; 郭東錫, 「准提觀音·白衣觀音線刻方形鏡像의 圖像解釋: 中國准提觀音圖像의 新解釋」, 『美術資料』 48(1991), pp. 74-100.

33 호암미술관 소장의 〈준제관음도〉의 화기에는 萬曆이라는 제작년대가 있지만 양식적인 면을 고려해 볼 때 조선 후기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저, 일월, 비파, 염주 등 갖가지 지물을 들고 있고 특이하게 연화대좌 아래에는 연잎을 타고 있는 공양인이 있고 좌우에는 선재동자와 용왕이 협시하고 있다. 이처럼 준제관음보살도는 연화좌 위에 앉아 있는 3목18비의 형상과 연화좌를 잡고 있는 2명의 용왕을 주요 도상으로 사용하였다.

통도사 <화엄칠처구회도>의 준제관음보살은 앞에서 살펴본 준제관음도에서 볼 수 없는 승려와 업경대가 등장한다. 준제관음보살에 승려와 업경대가 나오는 자료로 일본의 寶永 원년(1704)에 黃檗山에서 개간된 『佛說七俱胝佛母心大准提陀羅尼經』의 변상도를 들 수 있다.<sup>27</sup> 이 변상도에는 3목18비의 준제관음보살이 있고 그 오른쪽에 손향로를 든 승려가 연화좌 위에 앉아 있다.<sup>34</sup> 화상법에 의하면 준제관음보살 왼쪽에는 손향로를 든 지송자(혹은 성자)가 있다. 통도사 <화엄칠처구회도>에 등장하는 승려는 준제관음보살을 바라보거나 손향로를 든 모습은 아니지만 寶永 원년에 판각된 『불설칠구지불모심대준제다라니경』의 변상도처럼 업경대 앞에 자리하고 있어 화상법의 지송자로 추정된다. 지송자 앞에서 있는 업경대는 원래 화상법에 없는 도상이다. 우리나라에서 준제관음보살도에 업경대가 나타나는 예는 호암미술관 소장의 <준제관음도>가 있다. 준제관음보살의 오른쪽에는 수면 위로 붉은 연화에 금빛 업경대가 있다. 업경대는 지난날의 과업을 비추어 보는 거울로서 시왕도나 지옥도에서 많이 표현되었다. 준제관음보살과 업경대의 관련성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만력년간에 제작된 호암미술관 소장의 <준제관음도>와 명·청시대의 경관을 1704년 다시 복간해서 만든 일본의 『불설칠구지불모심대준제다라니경』의 변상도에 업경대가 표현된 것으로 보아 늦어도 16세기 후반부터 준제관음의 도상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통도사 <화엄칠처구회도>는 교학을 상징하는 『화엄경』의 노사나불과 칠처구회 외에 염불문인 『천수경』의 천수관음보살과 준제관음보살을 함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sup>34</sup> 三井淳生은 이 승려를 경의 譯者인 地婆阿羅로 보고 있으며 변상도에 역자가 표현된 것으로 보아 明·淸의 경관을 다시 模刻한 것으로 보고 있다. 三井淳生, 『日本の佛教版畫: 折りと護りの世界』(岩停美術史, 1986), p. 106, 194. 그러나 준제관음보살의 왼쪽에서 持誦者が 손향로를 들고 준제관음보살을 바라보고 보살도 그를 쳐다보는 화상법의 내용으로 볼 때 이 승려는 역자라기보다는 지송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 V. 화엄의 연화장세계도

### 1. 연화장세계도의 연원과 성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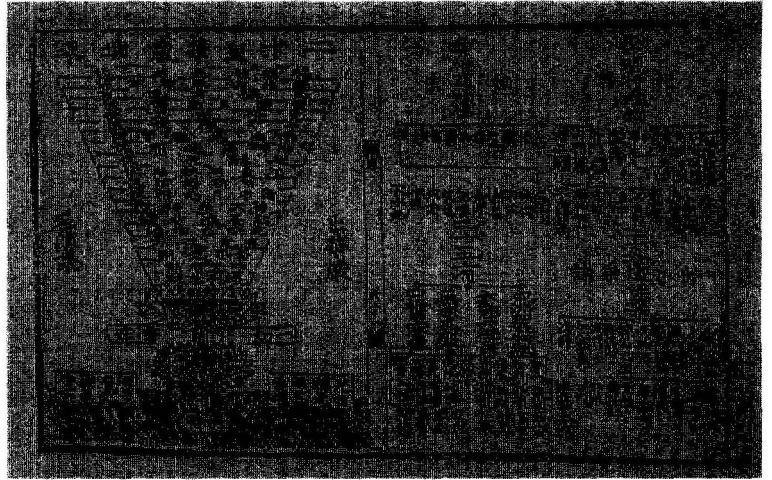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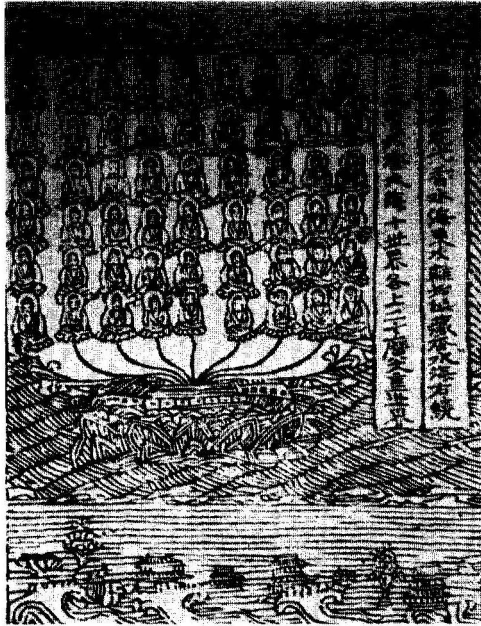
조선시대에 연화장세계의 표현은 18세기 후반에 그려진 송광사·선암사·쌍계사의 〈화엄칠처구회도〉에서 나타난다. 이때에는 제1회 보리도량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품으로서 화면 하단에 위치한다. 연화장세계의 인식이 증대되면서 19세기 후반에는 화엄칠처구회도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닌 독립된 성격으로 연화장세계도가 제작되었다. 단독으로 조성된 예로는 서울역사박물관 소장의 〈비로화장지도〉(19세기), 용문사 〈연화장세계도〉(1896년), 통도사 〈화장찰해도〉(1899년) 등이 있다.

『80화엄경』의 「화장세계품」은 보현보살이 대중들에게 비로자나불의 誓願과 修行으로 이룩된 비로자나불의 정토인 蓮華藏世界를 설명한 부분이다. 따라서 연화장세계는 그 자체가 바로 비로자나불이라 할 수 있다. 경전에서 서술하는 연화장세계는 맨 밑에는 風輪이 있고 그 위에는 香水海가 있다. 이 향수해에는 大蓮花가 떠 있고 대연화 안에는 무수한 수의 세계가 존재한다. 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계는 20重으로 중첩된 중앙 세계를 중심으로 110개의 세계가 있으며 그 가운데에 佛이 출현하여 중생들 속에 충만해 있다고 한다.<sup>35</sup>

연화장세계도 중 가장 앞선 형식은 중국 돈황 마고굴의 〈화엄경변상도〉와 파리 기메 박물관 소장의 〈화엄경변상도〉에서 볼 수 있다. 기메 박물관 소장의 〈화엄경변상도〉에서 연화장세계는 하단에 자리하며, 그 모습은 향수해 위에 대연화가 떠 있고 대연화의 좌우에 연꽃을 잡고 있는 2명의 인물과 봉양인이 서 있다. 대연화 안은 성곽 형태로 무수한 세계가 나누어졌으며 대연화에서 나온 작은 연화가 반원을 그리면서 둥글게 퍼져 있다. 그 위로 각종의 형상을 담고 있는 원모양의 세계종이 펼쳐져 있다<sup>36</sup>도 8 참고.<sup>36</sup> 또 다른 예는 일본에서 8세기

<sup>35</sup> 李箕永, 「華嚴思想의 現代的 意義」, 『韓國華嚴思想 研究』(동국대학교출판부, 1982), pp. 337-338.

<sup>36</sup> Jacques Gie's, 秋山光和 譯, 「新出の二大畫幅華嚴經變相七處九會および」, 『西域美術: キメ美術館ペリオオコレクション』(講談社, 1994), p. 49. 대연화에서 나온 연화와 구름 사이에 있는 원을 風輪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대연화 위에 그려진 작은 원을 연화장세계의 최하단에 배치되는 풍륜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오히려 연화장세계 안에 무수히 펼쳐진 세계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도 29 <현수제승법수변상도>, 조선 1673년, 목판본, 통도사 개관

도 28 <대방광불화엄경변상도> 권 제8,  
고려 13세기, 목판본, 해인사 개관

중엽(天平時代)에 조성된 奈良 東大寺 大佛의 蓮弁의 연화장세계이다. 각 蓮弁의 상단에는 여래를 중심으로 좌우에는 보살이 에워싸고 있으며 중단에는 25단계의 층이 있고 각 층마다 보살의 머리와 누각이 표현되었다. 하단에 있는 원에는 수미산이 표현되었다.<sup>37</sup>

우리나라에서 연화장세계를 표현한 가장 이른 예는 해인사에서 판각한 고려시대 <화엄경변상도> 중에서 「화장세계품」의 변상도를 들 수 있다. 연화장세계는 향수해 위에 대연화가 떠 있고 대연화에서 솟아 오른 작은 연화에 여래가 열을 지어 앉아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도 28. 그러나 이 연화장세계는 19세기에 조성된 연화장세계도와는 도상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고려시대 <화엄경변상도>에 묘사된 연화장세계가 회화적이라면 조선 후기 연화장세계도는 도식적이고 설명적이다. 조선 후기의 연화장세계는 연화 위에 여래가 앉아 있는 형태의 세계종이 아니라 세계종의 이름이 적힌 원들이 연계된 형태와 세계를 세로로 중첩시킨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조선 후기 연화장세계도와 도상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명대 行深이 편찬한 『賢首諸乘法

<sup>37</sup> 石田尙豊, 『日本の美術-華嚴經會』(至文堂, 1988), pp. 26-31 도 24 참고.

數』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경전에는 20이란 수를 설명하기 위해 「화장세계품」 1권의 중앙 세계에 분포된 20세계를 그림으로 도해하여 신고 있다도 29. 明末에 간행된 『佛祖統記』 역시 이와 비슷한 형태로 20세계를 표현하였다. 이 두 개의 변상도는 아래에 향수해, 금강륜산, 대연화가 있고 그 위로 20세계가 중첩되어 있다. 20세계 즉, 二十重廣大世界는 「화장세계품」 1권에서 서술하고 있는 普照十方熾然寶光明世界種을 구성하는 세계이다. 그러나 이 도상은 조선시대 불화에 곧바로 수용되지 못하였다.

조선 후기 연화장세계도에 직접적인 母本이 되는 것은 『華嚴玄談會玄記』에 수록된 변상도이다. 『화엄현담회현기』는 元代 普瑞가 澄觀이 지은 『華嚴經疏抄』에 해석을 더한 책이다. 『화엄현담회현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기는 숙종 7년(1681)이며, 性聰이 숙종 15년(1690)에 쌍계사에서 경판을 판각하여 유통시키면서 강원 교재로 널리 사용되었다. 『화엄현담회현기』에는 「화장세계품」을 설명하기 위해 두 개의 변상도를 소개하고 있다. 첫 번째는 『현수제승법수』의 변상도처럼 「화장세계품」 1권에서 설명한 중앙 세계종에 분포된 20세계를 표현한 것으로 대연화 위에 중첩된 20세계의 형태는 아래가 좁고 위는 넓다.<sup>38</sup> 두 번째는 연화장세계를 펼친 구조로 「화엄세계품」 1·2·3권에서 설명하고 있는 111개의 세계종을 커다란 원형 안에 순차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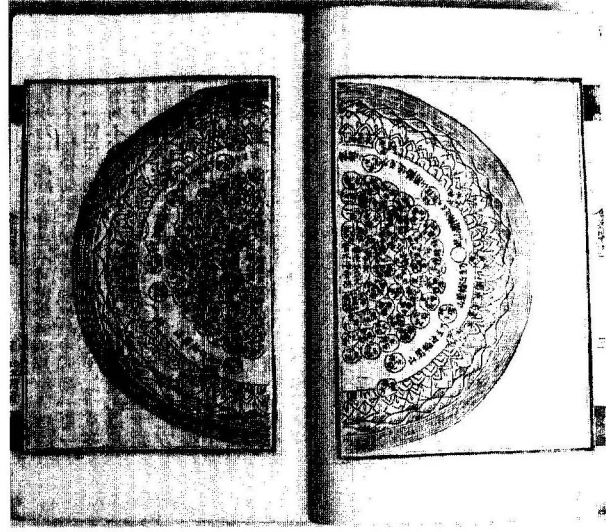
## 2. 19세기 연화장세계도의 도상과 구성

『화엄현담회현기』에 수록된 〈20세계 변상도〉와 〈연화장세계 변상도〉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세계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화장세계품」 1권의 普照十方熾然寶光明세계종에 중첩된 세계를 그린 것이다. 물결 이는 수면 위로 커다란 연화가 떠 있고 이 연화 양 옆에는 ‘一切香’, ‘摩尼王’이라는 명문이 적혀 있다. 이 명문은 一切香摩尼王莊嚴蓮花란 연화의 이름이다. 연화 위에 있는 20개의 세계에는 각각의 세계를 주재하는 여래의 이름을 적어 놓았다. 이 여래의 이름은 1. 淸淨眼佛, 2. 師子光佛, 3. 金剛光明佛, 4. 淨光智佛, 5. 香光喜力佛, 6. 光明自在幢佛, 7. 歡喜海功德佛, 8. 廣大名稱智佛, 9. 淸靜月光明佛, 10. 一切功德法佛, 11. 無量功德法佛, 12. 超釋梵佛, 13. 卽是毘盧遮那佛, 14. 徧法界勝音佛, 15. 不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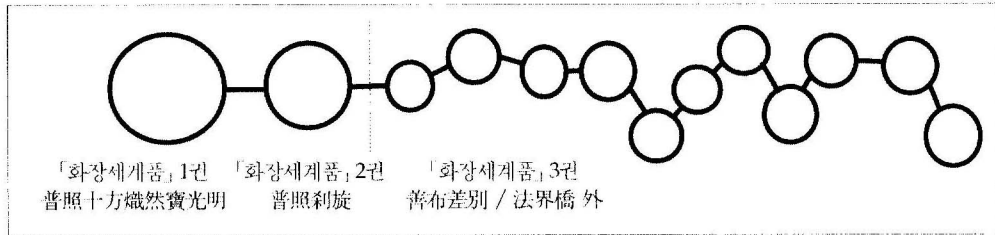
<sup>38</sup> “……鈔下狹上闊如倒立浮圖安象齒等急備引吞海集中此圖樣中央刹種既爾餘十不可說佛刹塵數刹種一一皆有二十重刹下狹上闊形相亦然.” 普瑞, 『華嚴懸談會玄記』卷12(雙磎寺 改版, 1690).



도 30 <화엄현담회현기변상도>, 조선 1690년, 목판본, 쌍계사 개관



도 31 <화엄현담회현기변상도>, 조선 1690년, 목판본, 쌍계사 개관



삼도 4 연화장세계도의 세계종 배열방식

摧伏佛, 16. 無礙智光明佛, 17. 清淨日功德佛, 18. 無礙方便佛, 19. 普照法界虛空佛, 20. 福德相光明佛 등이며, 마지막 20번째 칸에는 '有二十佛刹塵數世界圍繞' 라는 명문이 있다도 30. 이 중 경전에 서술된 20세계의 순서와 비교해보면 金剛光明佛, 淨光智佛과 無礙智光明佛, 清淨日功德佛은 앞뒤 순서가 서로 바뀌어 있다.<sup>39</sup>

<sup>39</sup> 보조시방식염보광명세계중 안의 20세계의 佛號는 맨 아래부터 “清淨眼離垢證佛, 師子光勝照佛, 淨光智勝幢佛, 金剛光明無量精進力佛, 香光喜力海佛, 普光自在幢佛, 歡喜海功德佛, 廣大名稱智海幢佛, 清淨月光明相無能摧伏佛, 一切法海最勝王佛, 無量功德法佛, 超釋梵佛, 卽是毘盧遮那如來世尊佛, 徧法界勝音佛, 不可摧伏力普照幢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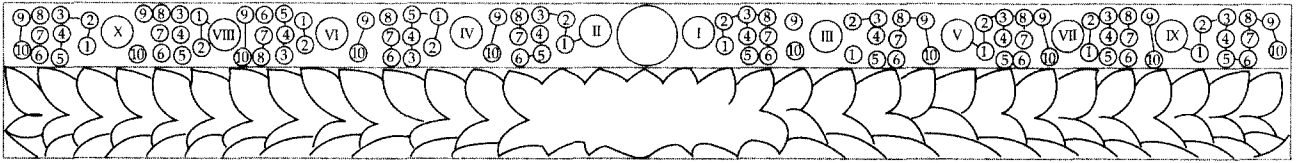
표 2 연화장세계의 세계종 명칭

번호	I. 次東徧照刹旋種	II. 次南佛幢莊嚴種	III. 次北佛光莊嚴藏刹種	IV. 右旋光照十方刹種	V. 妙寶閻刹種
1	差別方	多徧無	清淨行	香水光	國土平正
2	法界橋	普莊嚴	功德相	徧示十方	無迷惑
3	十方變化	摩尼形	摩尼冠	妙莊嚴	普現十方
4	寶蓮華 密	善建立	淨株輪	嚴徧照法界	佛言音
5	變化行	光明徧滿	百光雲	徧觀察十方	無邊方
6	諸佛護念	華嚴輪	寶光照	十方光明	無量處差別
7	最勝光	寶燄雲幢	金月眼	燈光照耀	普清淨
8	寶燄燈	眞珠藏	佛光明	無能礙風	迥出幢
9	常放光明	琉璃末	善花現	如來身光	普現光明力
10		出生大刹	無量方	安住帝網	
번호	VI. 右旋普現十方影刹種	VII. 右旋威德莊嚴刹種	VIII. 右旋普無垢刹種	IX. 右旋法界行刹種	X. 右旋燈焰光明刹種
1	普徧行	無垢稱	出生大雲	秀出寶幢	種種莊嚴
2	普出十方	虛空相	無礙淨	現一切	普入無量
3	恒出變化	無礙光	最勝燈	一切寶	寶光徧照
4	金剛幢相	普現十方旋	日光明	妙華開飾	名安布 密
5	法界勇猛	周徧行	寶華依	光明海	明了音
6	淨光明	現不思議	無 光	寶燄雲	因陀羅網
7	說微密處	示現無礙	普虛光空	金剛無徧	圓滿平正
8	現前垂布	名淨除旋	帝青炬光	無邊岸	密光燄雲
9	一切光莊嚴	諸佛願	普吼聲	普示現	願種種形
10		普音幢	周徧無差別	蓮華場	化現妙衣

연화장세계의 구조는 대연화를 경계로 밖은 연화장세계를 받치고 있는 香水海와 11개의 風輪이 있고 안쪽은 금강륜산과 111개의 세계종으로 구성된다. 삼도 4처럼 세계종의 배열은 「화장세계품」 1권의 중앙 세계종인 보조시방치연보광명세계종을 중심으로 「화장세계품」 2권의 세계종 1개가 연결되고 이어 「화장세계품」 3권의 세계종 10개가 이어지면서 하나의 무리를 이룬다.<sup>40</sup> 이와 같은 배열방식에 따라 <표 2>에서 보듯이 I에서 X까지 총10개의 무리

清淨日功德眼佛, 無礙智光明徧照十方佛, 無量方便最勝幢佛, 普照法界虛空光佛, 福德相光明佛”이다. 「華藏世界品」 1卷, 『高麗大藏經-華嚴經』, pp. 474-476. 20세계 중 13번째 世界名은 娑婆이고, 佛號는 毘盧遮那佛世尊으로 바로 우리가 사는 세계이다.

<sup>40</sup> 「華藏世界品」 2卷, p. 474下; 「華藏世界品」 2卷, p. 477上; 「華藏世界品」 3卷, p. 483上, 『高麗大藏經: 華嚴經』 참고.



삽도 5 송광사 <화엄칠처구회도> 세계종 배치도:  
「화장세계품」1·2·3권의 세계종이 연결된 화장세계도(표 2 참조)

가 구성되며 이 무리는 오른쪽 방향으로 둥글게 회전하면서 순차적으로 전개된다<sup>31</sup>.

### 3. 연화장세계도의 전개

조선 후기에 제작된 연화장세계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화엄칠처구회도를 구성하는 39품 중 하나로서 표현한 경우와 「화장세계품」만을 독립시켜 연화장세계를 단독 불화로 그려낸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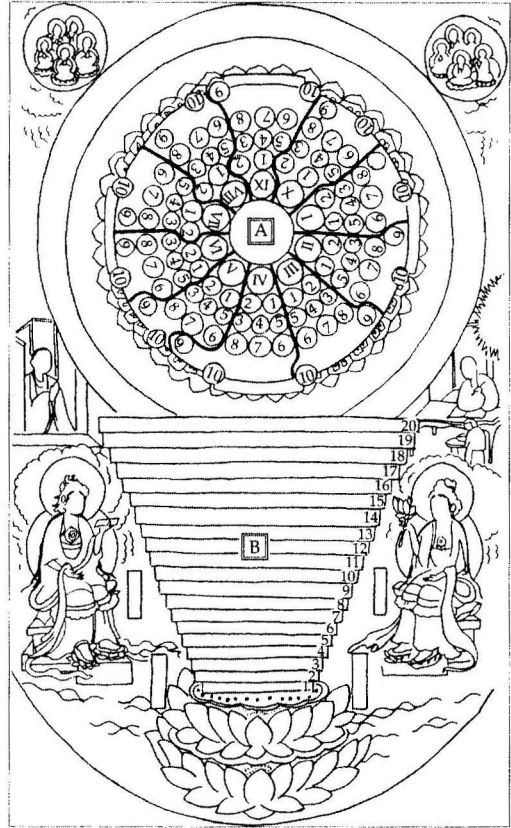
화엄칠처구회도에 연화장세계가 표현된 것은 송광사·선암사·쌍계사의 <화엄칠처구회도>이다. 이 연화장세계는 제1회 보리도량회를 이루는 6품 중 하나로 보리도량회와 연결되어 화면 하단에 자리한다. 화엄칠처구회도의 연화장세계는 『화엄현담회현기』에 실린 <연화장세계 변상도>처럼 11개의 풍류, 향수해, 대연화, 111개의 세계종으로 구성되지만 형태는 화면 하단에 가로로 길게 펼쳐져 있다. 즉 「화장세계품」 1권의 세계종인 ‘中央水無邊妙花香水海普照十方熾然寶光明刹種’을 중심으로 「화장세계품」 2권과 3권의 세계종 무리가 짝·홀수로 나뉘어 좌우에 배치되었다<sup>9, 10, 11</sup> 참고, 삽도 5. 이는 연화장세계 위에 자리한 칠처구회를 안정되게 보이기 위한 구조적인 변형으로 보인다.

단독 불화로 조성된 연화장세계도는 서울역사박물관 소장의 <비로화장지도>, 용문사 <연화장세계도>, 통도사 <화장찰해도>가 있다. 이 세 점은 『화엄현담회현기』에 수록된 두 개의 변상도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형태의 연화장세계도를 이루고 있다.

<비로화장지도>는 화기가 없어 정확한 제작년대를 알 수 없으나 용문사 <연화장세계도>나 통도사 <화장찰해도>와 같은 19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비로화장지도>는 붉은 바탕에 흰색의 필선으로 그린 선묘불화이다. 상단에는 둥근 연화장세계와 시방제불이 있고 하단에는 역삼각형의 20세계를 중심으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法首대사와 淸涼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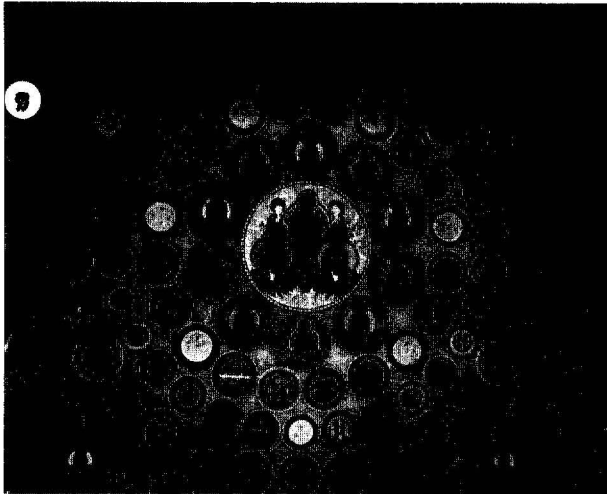
도 32 <비로화장지도>, 조선 19세기 후반,  
비단에 백색 선묘, 74×84cm,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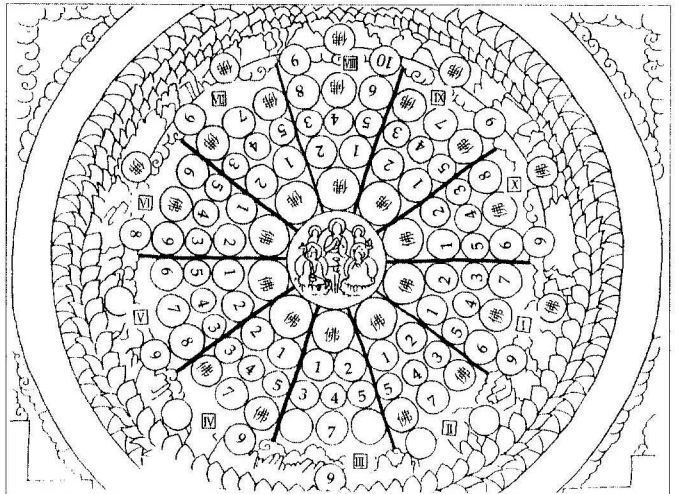
삽도 6 비로화장지도  
A. 「화장세계품」 1·2·3권의 세계종  
B. 「화장세계품」 1권의 세계(표 2 참조)

등이 좌우에 자리한다 도 32, 삽도 6. <비로화장지도>의 연화장세계와 20세계는 『화엄현담회현기』에 수록된 두 변상도를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옮겨 상하로 배치하고 있다.

<비로화장지도>는 연화장세계와 20세계를 가운데에 두고 양 옆으로 비로자나불의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과 지혜를 상징하는 보현보살이 있다. 이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결합하여 비로자나불이 완성된다는 삼성원융사상을 표현한 것이며, 연화장세계가 바로 비로자나불임을 상징한다.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위에는 중국 화엄종의 2대 조사인 현수거사 법장과 4대 조사인 청량법사 징관이 있다. 이들은 중국의 화엄교학 발전을 이끈 인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화엄사상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징관이 저술한 『화엄경소』와 『화엄경소초』는 우리나라 『화엄경』의 주 해석서로 사용되었을 정도로 조선 후기의 화엄사상에 있어



도 33 용문사 <연화장세계도>  
조선 1896년 추정, 삼베에 채색, 230×8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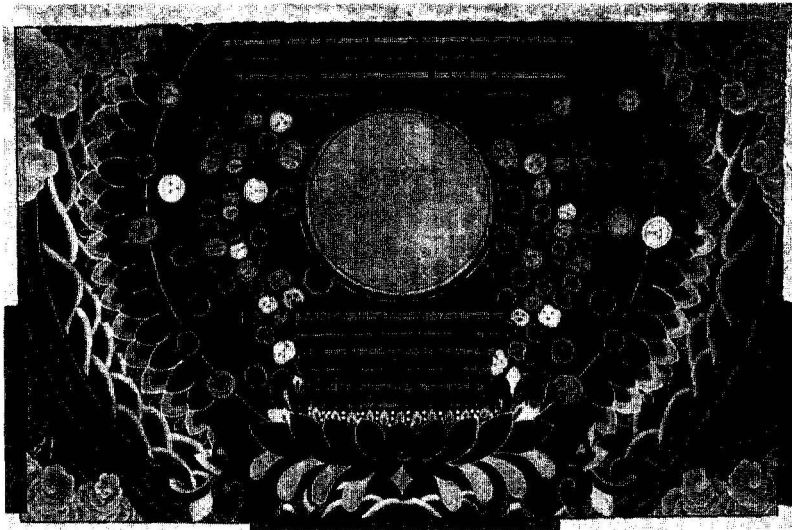
삽도 7 용문사 연화장세계도  
「화장세계품」 1·2·3권의 세계종(표 2 참조)

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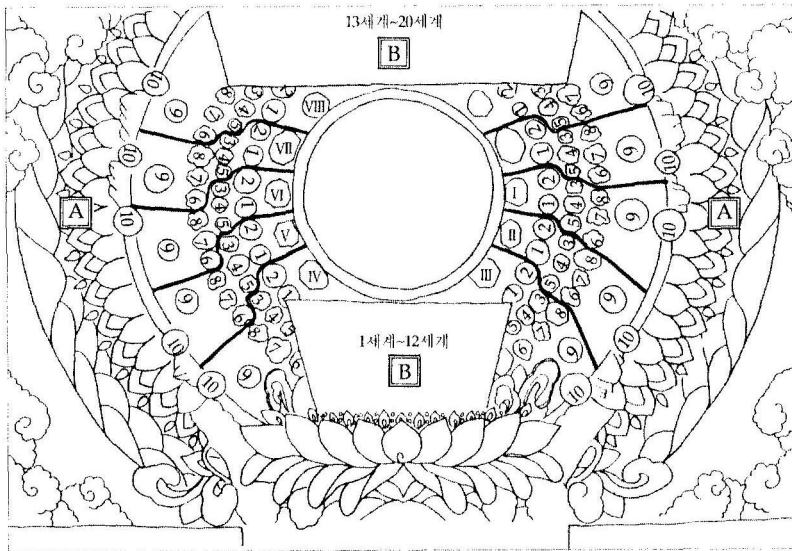
용문사 <연화장세계도>는 화기의 앞부분이 지워져 제작시기를 알 수 없지만 불화를 제작한 奉華, 法賢, 卍燁 등의 활동시기로 보아 고종 31년(1894) 전후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41</sup> 용문사 <연화장세계도>는 둥글게 펼쳐진 연화장세계만으로 되어 있다. 『화엄현담 회현기』의 <연화장세계 변상도>처럼 풍륜, 향수해, 대연화, 세계종으로 이루어졌고, 「화장세계품」 1권의 세계종을 중심으로 2, 3권의 세계종이 연결되어 만들어진 10개의 세계종 무리가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펼쳐진다(도 33, 삽도 7).

연화장세계 중심에 자리한 큰 원에는 세계종 이름 대신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가섭과 아난이 그려져 있다. 이는 비로자나불을 중심에 배치하고 다른 세계종을 연결함으로써 연화장세계가 결국 비로자나불 자체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큰 원에 이어 10개의 원이 둘러져 있으며 그 안에는 지권인, 촉지인, 설법인을 한 여래가 있다. 이 여

41 봉화는 龍門寺 <靈山會上圖>(1884년)에서 “金魚比丘 霞隱應祥 片手說海 玕淨 …… 法任 圓一天主 德華 義律 奉華”로, 太古寺 <七星圖>(1888년)에서 “片手比丘 瑞輝比丘 法任 台三 沙彌 奉化 幸典”으로 불사에 참가하고 있다. 봉화는 金龍寺 <山神圖>(1894년)에서 “良工 奉化”로, 金龍寺 <靈山會上圖>(1894년)에서 “金魚秩 法任 所賢 片手 奉華 法賢 頁華 典受”로 등장하고 있어 봉화가 주도적인 불사를 행했던 것은 1894년 이후로 추정된다.



도 34  
 통도사 <화장찰해도>, 조선 1899년, 152×97.5cm, 통도사 소장



삼도 8  
 통도사 화장찰해도  
 A. 「화장세계품」  
 1·2·3권의 세계종  
 B. 「화장세계품」  
 1권의 세계(표 2 참조)

래들은 「화장세계품」 2권에서 서술한 10개의 세계종에 머무르는 여래로 추정된다. 여래가 있는 10개의 원에는 다시 작은 원 10개가 연결된다. 이 원에는 「화장세계품」 3권의 세계종 이름을 적거나 비로자나불을 그리거나 때로는 빈 원으로 남겨 놓았다.

통도사 <화장찰해도>는 화사 東昊震徹, 梵海斗岸 등이 1899년에 제작하였다. 東昊震徹은 1896년에 통도사 <지장보살도>를 조성할 때 용문사 <연화장세계도>를 그린 奉華와 함께

작업한 점으로 보아 연화장세계도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sup>42</sup> 그러나 통도사 <화장찰해도>는 용문사 <연화장세계도>보다 <비로화장지도>와 같은 형식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통도사 <화장찰해도>는 <비로화장지도>에서 연화장세계와 이십중광대세계를 상하로 구성하는 방식과 달리 두 세계를 하나로 결합시키고 있다<sup>43</sup>. 삽도 8. 20세계가 연화장세계의 중앙에 자리한 큰 원 위에 자리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20세계를 반씩 나누어 큰 원 아래와 위에 배치하였다. 화면을 보면, 측면으로 그려진 연화는 20세계를 받치고 있는 연화이고, 둥글게 펼친 연화는 연화장세계를 받치고 있는 대연화이다. 연화장세계 안에 세계종은 앞의 두 예에서 보았듯이 「화장세계품」 1·2·3권이 결합된 10개의 세계종 무리로 구성되었고 이 무리는 시계방향으로 둥글게 배열되었다.

이처럼 연화장세계도는 「화장세계품」 1권의 20세계와 「화장세계품」 1·2·3권에서 서술한 111개의 세계종을 여래 이름과 세계종 이름으로 적어 표현하였다. 연화장세계는 세계종을 좌우대칭으로 배열하거나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하는 형식의 원형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20세계와 상하 이단구조를 구성하거나 하나로 결합된 형태로 표현되었다.

## VI. 맺음말

화엄칠처구회도와 연화장세계도는 조선 후기 성행했던 화엄사상을 반영하는 불화이다. 본 글에서는 화엄칠처구회도와 연화장세계도 연구에 있어 기초 자료라 할 수 있는 구성과 도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화엄칠처구회도는 설법회의 기본 도상인 노사나불 설법회의 연원과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송광사·선암사·쌍계사의 <화엄칠처구회도>와 통도사 <화엄칠처구회도>를 경전에 의거해 분석함으로써 사상적 배경과 도상적인 문제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노사나불 설법회는 영통사 <화엄경소변상도>(1372년)에서 시작되어 조선시대의 화엄경소변상도와 팔상도의 화엄설법회를 거쳐 화엄법회를 상징하는 도상으로 정착되었고, 이 도상에 근거해 화엄칠처구회도가 제작되었다. 지금까지 화엄칠처구회에 관한 연구는 칠처구회의 구성을 밝히는데 머

<sup>42</sup> 1896년에 조성된 통도사 <지장보살도>에는 “金魚比丘 東吳震徹 出草 奉華 印珞”가 참여하고 있다.

물러 있었지만 본 글에서는 송광사·선암사·쌍계사의 <화엄칠처구회도>를 『화엄경』의 39품에 의거해 분석을 시도해 보았고 그 결과 이 세 점의 화엄칠처구회도가 경전 세부적인 내용까지 매우 충실히 묘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통도사 <화엄칠처구회도>는 다른 세 점의 화엄칠처구회도와 달리 『화엄경』의 칠처구회와 『천수경』의 천수관음보살과 준제관음보살을 함께 표현하였다. 칠처구회의 구성은 화엄사상에 의거해 함축적이고 상징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칠처구회와 천수관음보살과 준제관음보살이 결합된 연유를 교·염불·선을 함께 병행하는 삼문수업의 영향으로 보았다.

연화장세계도 역시 도상의 연원을 알아보고 경전에 의거해 연화장세계의 구성과 상징을 살펴보았다. 조선 후기에 그려진 연화장세계도의 모본은 『화엄현담회현기』에 수록된 두 개의 변상도이다. 이 두 변상도는 『80화엄경』 「화장세계품」의 1·2·3권에서 서술한 세계종을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등글게 펼쳐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와 「화장세계품」 1권의 20세계를 역삼각형으로 중첩시키는 구조를 하고 있다. 조선 후기의 연화장세계는 비록 현존하는 수는 적지만 이 두 변상도를 근거로 하여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되었다. 송광사·선암사·쌍계사의 <화엄칠처구회도>에 그려진 연화장세계는 「화장세계품」 1·2·3권의 세계종을 좌우로 길게 펼쳐 전개하였고, 서울역사박물관 소장의 <비로화장지도>는 『화엄현담회현기』에 실린 두 변상도를 그대로 옮겨 그려 상하로 배치하였으며, 용문사 <연화장세계도>는 등글게 펼친 연화장세계만을 그렸고, 통도사 <화장찰해도>는 등근 연화장세계와 20세계가 하나로 결합된 형태를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화엄칠처구회도와 연화장세계도는 마치 경전을 읽는 것처럼 서술적이면서도 화엄사상의 핵심을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다.

\* 주제어: 칠처구회도, 연화장세계도

## ABSTRACT

# The Study of the Icons of 〈The Painting of the Seven Locations and Nine Assemblies of Avatamska 華嚴七處九會圖〉 and 〈The Lotus World Paintings of Dharmadhata 蓮華藏世界圖〉

Lee Yong-yun

This paper is studies on the resource and the icons of 〈The Painting of the Seven Locations and Nine Assemblies of Avatamska (華嚴七處九會圖)〉 and 〈The Lotus world Paintings of Dharmadhata (蓮華藏世界圖)〉. There are a only few articles introducing the structure of the former, yet on the latter the icon and the character are not concretely analyzed. So, the resource and the structure of both paintings are revealed here as a basic research.

Both Buddhist paintings are based on 80 Avatamska sutra (80華嚴經). 〈The Painting of the Seven Locations and Nine Assemblies of Avatamska〉 abstracts Avatamska sutra to the painting of the seven locations and nine assemblies in a picture. A few remaining paintings drawn in the latter 18th century and early 19th century remained include the paintings of Songgwangsa Temple (松廣寺, 1770), Seonamsa Temple (仙巖寺, 1780), Ssangyesa Temple (雙磎寺, 1790) and Tongdosa Temple (通渡寺, 1810). 〈The Lotus world Paintings of Dharmadhata〉 represents the paradise of Virocana described in the work of the Flower Bank World (華藏世界品), one of the 39 works (品) of 80 Avatamska sutra. The world of a lotus flower had been painted as a part of the assemblies in 〈The Painting of the Seven Locations and Nine Assemblies of Avatamska〉, and in the latter half of the 19th century it was painted as an independent subject in a picture: 〈Pirowhajangjido (毘盧

華藏之圖》(Seoul Historical Museum, 19th century), 〈The Lotus world Paintings of Dharmadhata〉(Yongmunsa Temple, 1896) and 〈Hwajangchalhaedo (華藏刹海圖)〉(Tongdosa Temple, 1899). Producing the Buddhist paintings related to Avatamska sutra from the latter period of Joseon was due to the prevalence of Avatamska ideas. Avatamska sutra was a final subject for learned monks of education institute by Avatamska philosopher and they published the books on the ideas. Based on this background, the 〈The Painting of the Seven Locations and Nine Assemblies of Avatamska〉 and 〈The Lotus world Paintings of Dharmadhata〉 were produced to explain the contents of the Avatamska sutra more clearly and easily.

The preaching with Rocana as a head of a Buddhist lecture meeting is the most important icon in 〈The Painting of the Seven Locations and Nine Assemblies of Avatamska〉. Rocana in vitarka mudra raising his hands over the shoulders puts crown and ornaments as a form of Bodhisattva, 〈Nosanabulhoedo (盧舍那佛會圖)〉(1022) of Feilafeng, Hangzhou in China is the earliest example of Rocana in Bodhisattva style. In Korea, in the latter half of the 14th century, it appeared in 〈Frontispiece of Hwaeomgyeongso (華嚴經疏變相圖)〉, 〈Frontispiece of Brahmajala Sutra (梵網經變相圖)〉, and in 〈Frontispiece of Dharani Sutra (圓覺經變相圖)〉. The icon of 〈Frontispiece of Hwaeomgyeongso〉 at Yeongtongsa Temple (靈通寺, 1372)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icon of 〈The Painting of the Seven Locations and Nine Assemblies of Avatamska〉. Rocana in the center is attended by Manjusri (文殊) and Samanthabhadra (普賢) on both sides and guarded by 39 Guardians (神衆) that appeared at the 1st Assembly at the Place of Truth (菩提道場會). In Joseon, 〈Frontispiece of Hwaeomgyeongso〉 is produced continuously at temples: Gwijinsa Temple (歸眞寺, 1556), Songgwangsa Temple (松廣寺, 1635) and Yeonggaksa Temple (靈覺寺, 1686). As a representative example, with the one from Songgwangsa Temple, there was a special effort to contain the whole contents of Avatamska sutra. The painting is described the Bodhisattva concretely from The Wonderful Adornments of the Leader of the Worlds (世主妙嚴品) and the Appearance of the Buddha (如來出現品) in the 1st Assembly and added Manjusri and Samanthabhadra, the 10 Buddhist Disciples and Sudhana from the 9th Jetavana Assembly (逝多林會). 'The Eight Scenes from the Life of Buddha (八相圖)' is also an important icon of 〈The Painting of the Seven Locations and

Nine Assemblies of Avatamska〉. The preaching assembly centered Rocana from 'the Buddhist Sermon in the Deer Park (鹿苑傳法相)', which is one of 'The Eight Scenes', appears in the painting. The scene is recorded as 'the Buddhist Sermon Avatamska sutra (說大華嚴大法)' in 'The Eight Scenes from the Life of Buddha' of Yongmunsa Temple (龍門寺, 1709). The scenes of preaching assembly of Rocana above is the important icon linked to 〈The Painting of the Seven Locations and Nine Assemblies of Avatamska〉 in the late period of Joseon.

〈The Painting of the Seven Locations and Nine Assemblies of Avatamska〉 in the late period of Joseon is divided into two kinds of forms according to the composition of a picture. The ones from Songgwangsa Temple, Seonamsa Temple and Ssanggyesa Temple belong to the first form, and the one from Tongdosa Temple belongs to the second form. The picture of the first form is divided into two stages of preaching in heaven at the upper side and preaching in the earth at the lower side. On the heaven the 3rd Travastrimasah Heaven Assembly (利天宮會) and the 4th Suyama Heaven Assembly (夜摩天宮會) are on the left side, and the 5th Tusita Heaven Assembly (兜率天宮會) and the 6th Parahirmitavasavartin Heaven Assembly (他化自在天宮會) are on the right side. In the earth, centered the 1st Assembly, there are the 2nd, 7th and 8th Hall of Universal Light Assembly (寶光明殿會) on the right side, and the 9th Assembly on the left side. The names of the characters are written in each Assemblies in narrative styles. By analysing the names in the description compared with the 39 works, the one from Songgwangsa Temple most substantially represents the content of the Sutra. Though the others belonging to the first form follow the preceding model, the one from Songgwangsa temple, some Assemblies are wrongly represented or omitted.

The one from Tongdosa Temple, belonging to the second form, divided a picture with Rocana symbolizing Avatamska sutra at the upper side, and Sahagrabhujā (千手觀音) and Cudī (准提觀音) symbolizing Chonsu-sutra (千手經) at the lower side. This composition reflects the exercise of monks' that combine doctrine (教), Buddha mantra (念佛) and Son (禪) in the latter period of Joseon. On the upper side, Rocana is set in the center and the 3rd, 4th, 5th and 6th Assemblies are on the right and left sides of the Rocana. In the middle of the picture, the 1st, 2nd, 7th, 8th and the 9th Assemblies are

drawn, and on the middle of the lower side Suddhana and 53 kalyamitras (善知識) are drawn. Each Assembly is consisted of Buddhas, Bodhisattvas and Guardians around the preaching Bodhisattva or Buddha in the center. The essence of painting is the Hall of Universal Light Assembly, the 2nd, 7th and the 8th. It symbolizes the consubstantiality: relating to Rocana in the upper, Buddha, the preacher of the 7th Assembly, appears as Rocana to preach Avatamska sutra, and with attending Manjusri of the 2nd Assembly on the right side and Samanthabhadra of the 8th Assembly on the left side Buddha and Rocana are completed to Dharma-kaya.

〈The Lotus world Paintings of Dharmadhata〉 expresses the paradise of Rocana explained in the 80 Avatamska sutra. Though the painting was a part of 〈The Painting of the Seven Locations and Nine Assemblies of Avatamska〉 in the latter half of the 18th century, it is produced as an independent buddhist painting in the latter half of the 19th century. The model for the painting in the latter period of Joseon is two kinds of frontispiece in the book explains Avatamska ideas, *Whaeomhyundamwoehyungi* (華嚴玄談會玄記). The frontispieces have two kinds of construction: one is that the 20 worlds in the first volume of the work overlap one another in an inverted triangle shape, and the other is that Buddha-field (世界種) in the 1st, 2nd and 3rd volumes of the work are arranged organically in clockwise rotation.

In 〈The Painting of the Seven Locations and Nine Assemblies of Avatamska〉 of Songgwangsa Temple, Seonamsa Temple and Ssanggyesa Temple, the world of lotus flower is expressed by unfolding Buddha-field of the 1st, 2nd and 3rd volumes of the work of the Flower Bank World on the right and left sides. In 〈*Pirowhajangjido*〉 of Seoul Historical Museum two frontispieces of 〈*Whaeomhyundamwoehyungi*〉 is copied and arranged up and down. 〈The Lotus world Paintings of Dharmadhata〉 of Yongmunsa Temple contains the rounded the lotus world, 〈*Whajangchaelheado*〉 of Tongdosa Temple the round lotus world and 20 worlds are combined.

As above based on the developed Avatamska idea 〈The Painting of the Seven Locations and Nine Assemblies of Avatamska〉 and 〈The Lotus world Paintings of Dharmadhata〉 describe the story of the Avatamska sutra as reading it and reveal clearly the essence of Avatamska idea.